

힐링 여행의 아포칼립스와 정착민 식민주의의 정동들*

권명아**

1. 탈식민 정치 기획의 배제와 식민화된 지방소멸 담론의 부상: 국가와 주권성에 대한 질문이 멈춘 자리
2. 지방소멸과 정착민 식민주의의 감성구조, 그리고 '힐링': 제국주의, '양민' 학살,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까지
3. 이단을 몰고 오는 환향년들: 세계로서 일본과 일본 문제로서 지방소멸/창생 서사
4. 4대륙의 친밀성과 '원주민'의 질병: 병리적 신체 혹은 '타이완'이라는 소멸 신체성
5. '무심한 양민'에서 '포용적인 토착민'까지: 무국가 상태 혹은 정착민 식민자로서 "육지 것들"
6. 대안적인 지방 이념의 이론화와 정착민 식민주의 연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일본, 타이완, 한국의 드라마를 비교 고찰하면서 지방 담론과 지방소멸 서사의 국가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권역, 국가, 지방의 관계 설정이 일본, 타이완, 한국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국가별 지방 이념과 지방소멸 서사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지방소멸 담론이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 역사의 산물로 정착민 식민주의에 내포된 젠더화 되고 인종화 된 배제와 절멸 구조를 반복하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정착민 식민주의의 특정한 감정 구조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389)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귀향이라는 이동과 이에 동반되는 힐링이라는 정동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일본 드라마 〈하야부사 소방단〉과 영화 〈빌리지〉는 “부흥 재해”나 “지역 재생의 실패학”이 부상하는 일본에서의 지방 담론의 추이를 잘 보여준다. 〈하야부사 소방단〉은 지방 마을을 파괴하는 적으로 이단 종교 집단을 설정하고, 마을에서 추방된 여성을 이 이단의 스파이로 설정하는 등 인종 차별적인 배제와 젠더 차별을 반복하는 지방소멸 담론의 전형을 반복한다. 반면 〈빌리지〉는 이러한 지방소멸 담론의 약탈적인 식민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서 지방은 중앙(도쿄)과의 대비 속에 위치하며, 중앙인 도쿄가 국가 혹은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타이완 드라마 〈차금〉이나 영화 〈미국 소녀〉, 한국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웰컴투 삼달리〉 등의 지방소멸 서사와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타이완과 한국의 지방소멸 서사는 국가 내부의 위계와 관계(중앙과 지방)만이 아니라, 권역 간 연결성(북미 지역과 중국 등)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 일본의 지방소멸 서사에서 지방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건 중앙이라면 타이완과 한국에서 지방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건 한편으로는 중앙이지만, 이 중앙의 인구 역시 국외의 다른 권역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일본의 지방소멸 담론이 궁극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개입과 일본의 세계 중심성을 회복하려는 기획이라면, 한국의 지방소멸 담론은 국가가 부재한 채, 지방의 소멸을 소모적으로 부추길 뿐이다. 지방소멸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극소수이며, 지방 개념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역시 아직은 미진하다. 지방 개념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만 현재와 같은 약탈적인 지방소멸 담론의 소비를 멈출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지방소멸 담론은 인종화 되고 젠더화 된 적/공동체 개념과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이런 범주화는 단지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학살, 전시동원의 역사적 산물임에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소멸 담론과 정착민 식민주의의 정동 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대안적인 지방 이념을 구축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

(주제어: 지방소멸, 마스다 보고서, 정착민 식민주의, 정동, 젠더사, 대안적 지방 이념, 힐링 서사

1. 탈식민 정치 기획의 배제와 식민화된 지방소멸 담론의 부상: 국가와 주권성에 대한 질문이 멈춘 자리

역사를 다시 쓰지 않고 지방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 역사를 다시 쓰지 않은 채, 지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지방에 소멸이 아닌 다른 미래를 마련할 수 있을까? 조앤 W. 스콧이 여성사의 딜레마와 젠더사 이론의 재구축을 논하면서 『젠더와 역사의 정치』에서 제기한 질문을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조앤 W. 스콧은 버지니아 울프의 질문을 인용해서 자기 나름으로 다시 쓰면서 “역사를 다시 쓰지 않은 채”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역사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¹⁾

또 젠더사와 젠더 정치 이론의 재구축을 통해서 기존의 이분법, 즉 “국가와 가족, 공과 사, 여성과 남성, 노동과 섹슈얼리티 같은 걸으로는 명백한 이항 대립을 종식시킬 것이다.”²⁾라고 논한다. 근대 비판 이론을 통해 자

1) 조앤 W. 스콧, 『젠더와 역사의 정치』, 정지영·마정윤·박차민정·정지수·최금영 역, 후마니타스, 2023, 46쪽.

주 반복되는 이런 논의는 지방과 관련해서 다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지방 개념은 한국에서 서울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차별하고 위계화하는 개념으로, 차별적 함의를 지닌다. 1980년대 후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역 문화론” 논자들은 지방 개념 대신 지역을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은 그런 점에서 지방에 대한 대체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언어의 변화만으로 지방에 대한 차별은 변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방 개념을 그 차별적 언어 사용을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전유해서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³⁾ 지역이 비수도권만을 지시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한국에서 지역은 비수도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지역, 지방은 서울/수도권과 구별되는 위계와 대립의 산물이다. 지방선거, 지방정부에 서울시와 수도권도 모두 포함되며 지방소멸위험지수 조사에도 서울시와 수도권은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를 지방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듯이 지방소멸위험 역시 비서울, 비수도권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담론이 지방에 대한 식민화를 생산하고 재생산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지방소멸 담론이 제국주의와 전시동원 체제의 이념을 반복한다는 비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한편으로 한국에 도입된 지방소멸 담론은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화와 전시동원의 이념을 반복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지방소멸 담론이 비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근대사 이래 지속된 탈식민주의 정치적 기획과 이론 실천이 사라지거나 배제되어 온 사회적 변화와

2) 위의 책, 61쪽.

3) 지방과 지역 개념에 대한 논의 과정과 지역 문화론의 의미에 대해서는 권명아, 「기념의 정치와 지역의 문화 정체성: 저항과 글로벌 마케팅의 사이」, 『인문연구』 제53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38쪽을 참고.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지형도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방은 식민지다.”⁴⁾라는 비판이 이미 2008년 이후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지방소멸 담론이 휩쓸고 있는 2024년 현재 지방의 식민성에 대한 논의는 힘을 잃었다. 이는 단지 지방과 관련한 문제만은 아니다. 해방 이후 분단 체제인 한국에서 탈식민 기획은 도도하게 이어졌다. 탈식민주의 이론이 부상한 1990년대 들어 이른바 ‘주권 국가’라고 여겨지는 후식민 국가가 여전히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 상태라는 점을 여러 지점에서 다시 고찰할 수 있었다. 지방이 식민지라는 언명은 이른바 ‘내부 식민지’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식민화에 대한 이론적 비판의 연장에 있었다.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논의를 새삼 반복하지는 의미가 아니다. 탈식민주의 이론과 분단 이후 지속해 온 탈식민 기획의 역사에서 탈식민은 소수자의 해방 뿐 아니라 식민화된 국가의 해방을 의미했다. 즉 국가의 주권성은 전혀 자명하거나 명백하지 않았다. 분단 체제 이래 지속된 탈식민 기획에 담긴 주권 없는 국가에 대한 비판을 담은 무수한 역사 자료들은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settler colonial state) 비판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⁵⁾

2024년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질서 하에서 국가성을 둘러싼 타이완의 고투를 한국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견고한 주권 국가라는 인식이 어떤 점에서는 강해졌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담론은 주권성에 대한 한국의 이러한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주권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나긴 탈식민 기획의 역사는 망각되었지만, 국가성

4)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지방자치-지방문화-지방언론의 정치학』, 개마고원, 2008.
5) 본 연구는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전쟁, 분단을 거쳐 구축된 탈식민 기획의 역사를 새롭게 규명하고, 탈식민 기획의 역사 속에 무수하게 발견되는 주권 없는 국가에 대한 비판 담론을 정착민 식민주의 비판의 역사로 재해석하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된 정착민 식민주의 비판의 역사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고자 한다.

에 대한 견고한 확신은 오히려 강화된 역설적 상황이 오늘날 한국의 지방 소멸 담론이 힘을 얻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실질적인 탈식민 주권성을 얻지 못하였으나 국가성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더욱 강해지면서 그 균열을 봉합하는 기제로 지방소멸 담론과 ‘내부 식민지’에 대한 차별 정책이 견고하게 등장했다. ‘내부 식민지’에 대한 배제와 절멸의 기획이 주권성의 실질적 부재와 정동적 강화 사이의 딜레마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 담론은 주권성의 정동화 혹은 정동적 국가성의 산물이며 이를 재생산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대는 벚꽃처럼 진다고도 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이런 계산법은 이미 젠더화 되어 있고 인종화 되어 있다. 즉 생산 인구를 65세 이하 비장애 남성으로 규정하고 재생산 인구(가임 여성)와 비생산 인구(고령 인구)의 비율에 따라 소멸 지표를 측정한다. 지방소멸 지표 자체가 성차, 연령 차이, 장애 여부, 정상성의 기준과 인종(이 지표에 인종적 소수자 자체는 측정값으로 계산되지 않는다.)을 위계화하고 생산성이라는 가치에 따라 배치하는 측정법의 산물이다. 이런 계산법은 전국 지역별로 가임 가능한 여성을 조사하여 지도로 만들었던 “가임기 여성지도”의 측정 방식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가임기 여성지도 제작은 한국 정부가 재생산 정책을 어떻게 젠더화 되고 인종화 된 인구 통계학으로 환원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가임기 여성지도”는 공표되자마자 거대한 비판에 직면했고 마침내 폐기되었다는 것이다.⁶⁾

“가임기 여성지도”는 폐기되었지만, 지방소멸위험지수로 형태를 달리

6) “가임기 여성지도”의 제작 과정과 비판, 폐기에 이르는 과정은 <‘가임기 여성지도’ 이렇게 탄생했다>(정유경 기자, 『한겨레』, 2017.01.11.)에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해서 계승되었다. 흥미롭게도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이 없었고 오히려 소멸 공포를 효율적으로 자극했다. 지방소멸은 사실이 되었고 소멸하지 않는 수도권과 명확하게 다른 가치와 의미 체계로 할당되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측정한 지표 중 소멸 지표를 2에서 5까지로 분류한 지표를 보면 오히려 한국 전체의 높은 인구 감소 상황을 보여준다. 2로 분류된 지역이 전체에서 극소수를 차지한다.

소멸위험지역 현황(2023년 2월 기준)

지방소멸위험분류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1	0	(0.0)	0	(0.0)	166	(4.6)
2	1	(5.9)	17	(7.5)	328	(9.2)
3	10	(58.8)	93	(40.8)	1,135	(31.7)
4	6	(35.3)	67	(29.4)	778	(21.7)
5	0	(0.0)	51	(22.4)	1,173	(32.8)
소멸위험지역 소계	6	(35.3)	118	(51.8)	1,951	(54.5)
전체	17	(100.0)	228	(100.0)	3,580	(100.0)

〈그림 1〉 「지방소멸위험지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그렇지만 지방소멸 지표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를 소멸 지역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발휘했다. 게다가 매년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비수도권의 위험 상황을 선정적으로 강조하는 기사가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에 일종의 낙인 효과로 작동하게 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정의한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를 토대로 소멸위험 지역의 비중을 따져

보면 2023년 2월 기준 전북 14개 시군구 중 13곳이 소멸위험 지역(92.9%)으로 분류되고, 강원도 경우 18개의 시군구 중 16곳(88.9%)이 소멸위험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경북(87%)·전남(81.8%)·충남(80%)·충북(72.7%)·경남(72.2%)·부산(43.8%) 등의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핵심 인적자원인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5개 경제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북권·동남권)중 동남권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총 67만 명으로 가장 컸는데 특히 이중 20대의 93.4%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⁷⁾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청년의 지역 이탈에 주목하면서 지역 일자리 문제로, 인구 감소에 주목하면서도 지역 여성(가임 인구)의 이탈 문제로 이전되었다. 지역 일자리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에 여성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방소멸위험 논의 자체가 이미 젠더 차별적이며 남성화된 생산력 중심 이념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책 역시 기존의 지방소멸에 대한 프레임을 문제제시하지 않으면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한국 사회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이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2014년 전후로 가속화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놓여있다. 청년 실업은 한국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이고 대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비정규직화하고, 고용 자체를 줄이면서 촉발되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산물이다. 게다가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 청년 일자리 정책이 거듭 실패하고 기업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한

7) 최철호 기자, <<청년지역정착 (下)> 지방소멸위기 광역시까지 '확산'...청년마을 산업 '눈길', 『청년일보』, 2023.06.25.

채 공전해왔다.⁸⁾ 즉 청년 실업 문제는 고용 유연화의 젠더화에 따른 결과이며 지방 청년 유출 문제는 이러한 젠더화 된 고용 유연화를 지방 문제로 전가한 결과이다. 즉 국가, 기업, 정부, 정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청년에게 전가하고, 지방 문제로 전가한 것이다.

다른 한편 고용 없는 성장 시대는 이른바 글로벌 경제에 대한 환상이 붕괴하고, 실제적으로도 글로벌 경제를 통한 탈출구가 봉쇄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른바 신냉전 질서가 공고해지는 시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한국 사회는 낡은 냉전 섬에 다시 갇혀버렸다. 2010년대의 신조어로 기록된 “헬조선” 담론은 수저계급론으로 이어졌다. “헬조선”이 2010년대 한국 사회의 징후를 보여준다면 지방소멸 담론은 2020년대의 키워드가 되었다. “헬조선”과 “지방소멸” 사이에는 특이한 연속과 단절이 있다.⁹⁾ “헬조선”

8) 현재 이십 대들은 한국의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취업 전쟁에 내몰렸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고용 형태를 비정규직, 인턴 등으로 ‘유연화’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시대, 특히 2014년 이후 기업이 신규 채용 비율을 대폭 줄이면서 현재와 같은 취업 대란 시대가 열렸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청년들은 공공부문 취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고 기업의 일자리도 불안정 고용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고용 유연화의 결과 여성 취업자는 대부분 결혼과 임신·출산으로 해고 되었고, 남성 신규 취업자들의 삶은 반복되는 해고와 산재 위험이 일상이 되었다. 동시에 이 세대는 대졸자의 신규 취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특이한 양태를 보여서 고학력 니트족이 대량으로 양산되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2015년 이래 지속하였다. 전례 없는 청년 실업은 20대 모두가 처한 공통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든 주체도 해결할 주체도 기업, 정부, 정당이다. 또한 경력 단절과 해고 위협과 산재의 일상화는 고용 유연화라는 이 세대의 공통 문제가 젠더화 된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다. 고용 유연화의 젠더화이다. 그러하니 경력 단절 대책이 여성 할당제라고 폐지하면, 20대 남성들의 노동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더 악화하고 그런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페미니즘과 여성을 공격하는 쾌락 대신 사실상 잃는 것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정책과 여론이다. 이에 관해서는 권명아, <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는?>, 『프레시안』, 2021.05.31. 참고. 청년 실업 문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서 이대남 담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 글의 연속 기고문인 권명아, <‘인국공 사태’의 교훈이 반페미니즘?>, 『프레시안』, 2021.06.03.

에서는 한국 전체가 미래도 없고, 가망도 없으며 ‘이민만이 답’인 디스토피아로 그려진다. 반면 “지방소멸” 담론에서는 헬조선의 표상 전체가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이전의 역학을 살피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지방소멸 담론과 지방 담론의 역사를 살피기 위한 예비적 고찰의 하나이다. 여기서 “헬조선” 담론이 이민을 거의 유일한 탈출구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소멸 담론에서는 이동의 경로가 지방에서 서울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 담론에서는 이민, 조기유학, 이중 국적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국외 탈출의 경로’가 비가시화 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울과 지방을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이동 경로를 구축한 것이 지방소멸 담론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을 탈출한 자들만이 ‘성공 그룹’이 될 수 있었던 헬조선 담론과 비교해서 지방소멸 담론에서는 서울로 탈출한 자들이 ‘성공 그룹’이 된다. 물론 이는 한편으로는 서울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극심해지는 새로운 상황의 반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대에 비해 2020년대에는 조기 유학, 이민으로 상징되는 한국 탈출의 경로가 더 이상 유토피아를 향한 출국이라는 희망으로 여겨지는 않는 현실적 상황, 즉 국외로의 이주 자체도 봉쇄된 상황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내내 신조어로 유행했던 “기러기 아빠”는 한국 사회 조기유학 열풍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조기유학 현상의 변화를 연구한 박대권과 장경진에 따르면 “한때 우리나라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조기유학 열풍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2000년 조기 유학 자유화 조치 이후로 5000명에 불과하던 유학생 수

9) 2000년대를 휩쓴 조기유학 현상을 분석하면서 오욱환은 조기유학을 “유토피아를 향한 출국”으로 생각했던 당대 한국사회의 정동과 실패를 보여준다. 오욱환, 『조기유학, 유토피아를 향한 출국』, 교육과학사, 2008.

는 2006년 3만 여명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떠올랐다.”¹⁰⁾ 그러나 조기 유학은 201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2006년부터 시작된 조기 유학생 수의 감소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경기 침체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결정적이다.¹¹⁾ 즉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토피아로의 출국”으로 상상된 조기 유학의 문도 닫히면서 국외 탈출의 가능성은 점차 좁아진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한국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사회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해결책조차 찾을 수 없게 된 증오정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봉쇄된 사회에서 탈출구가 없는 증오는 해소할 대상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데 여성, 성 소수자, 아동(노키즈 존), 고령자, 이주민, 장애인을 거쳐 오늘날 지방은 가장 문제적 대상으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지방소멸 담론은 국외로의 이동 경로 자체가 삭제된 채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을 극대화한다. 또 소멸하는 지방에서 서울로 탈출하는 대탈출의 서사를 반복한다.

즉 지방소멸 담론은 짧게는 1990년대에서 2020년대에 이르는 전지구적인 권역적 귀속(regional belonging)의 변화, 권역 경계의 변화에 따른 일국 단위의 이동과 편입 방식의 변화, 이와 연계된 일국 내의 경계의 재배

10) 박대권·장경진, 「조기유학 현상 변화(2000-2016)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미래교육학연구』 제33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48쪽.

11) 박대권과 장경진은 조기유학 감소 현상을 경기침체 외에도 두가지 변수를 상정해서 설명한다.

그러나 조기유학 감소의 결정적 요인은 세계금융위기라고 평가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조기유학생 수의 감소 현상에는 조기유학에 대한 평가가 축적되면서 기존에 조기유학 결정을 지지하던 아이디어들이 재검토되고 폐기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조기유학생 현상이 전면적인 감소 추세로 돌입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경로가 유지되면서 국제학교, 단기영어연수와 같은 대안들이 검토되고 도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위의 글, 65쪽.

치와 이동 등에 따른 권역, 국가, 지역과 관련한 이념 변화의 산물이다. 나아가 지방소멸 담론은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둘러싼 이념, 가치, 경제적 할당, 역할 부여, 정동 경제 등의 복합적인 의미 형성 기제의 산물이다. 즉 지방이 만들어져온 역사와 의미화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지방소멸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방을 소멸로 이끈 지방 이념 자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된 마쓰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지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역사적 상황의 산물인 지방소멸 지수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고, 미디어에서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¹²⁾ 또 지방소멸위험지수의 측정법을 만든 마쓰다 보고서가 일본에서 지방 이념이 구축된 전시동원 체제의 이념을 반복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¹³⁾ 즉 마쓰다 보고서에 담긴 지방에 대한 이념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전시 동원 이념의 산물이다. 특히 동일본 대진재 이후 국가중심의 부흥 서사는 이런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여기 담긴 제국, 일본, 지방의 관계를 재생산했다. 또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면서 지방을 인종화, 젠더화, 식민화하는 이념 구조 역시 무비판적으로 이식되었다.

12) 정성호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는 무비판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기존의 논의는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한국 지자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도 지방소멸이라는 표현의 간결성과 용어의 자극성으로 무분별하게 이 용어를 사용하여 소멸 위기위식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 인구의 수만 가지고 지방소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지방소멸 위기의식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다. 정성호,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0권 제3호, 지역사회학회, 2019, 6-7쪽.

이외에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제기된 바 있다. 원광희·채성주·설영훈, 「지방소멸위험지수의 기준은 과연 적합한가?」, 『충북 FOCUS』, 충북연구원, 2020, 1-26쪽.

13)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쓰다 보고서」, 『일본비평』 제16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158-183쪽.

2. 지방소멸과 정착민 식민주의의 감성구조, 그리고 ‘힐링’: 제국주의, ‘양민’ 학살,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살던 땅, 살던 대로 살 권리, 삶의 주권, 삶 자체를 다 빼앗겨버린 밀양 주민들. 송전탑 반대 시위를 지속해 오던 한 주민은 구술 인터뷰에서 송전탑 투쟁 현장을 처음 겪어본 전쟁이라고 구술했다.

이 골짜기 키갓고 이 골짜기서 늪었는데 6·25 전쟁 봤지, 오만 전쟁 다 봐도 이렇지는 안했다. 이건 전쟁이다. 이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다. 내가 대가리 털 나고 처음 봤어. 일본시대 양식 없고 여기 와가다 쪼아가고, 녹으로 다 쪼아가고 옷 없고 빨개벗고 땀기고 해도 이거 카쁜. 대동아전쟁 때도 전쟁 나가 행여 포탄 떨어질까 그것만 걱정했지 이러케는 안 이랬다. 빨갱이 시대도 빨갱이들 밤에 와가 양식 달라 카고 밥 해달라 카고 그기고. 근데 이거는 밤낮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걸 마 사람을 조지는 거지. 순사들이 지랄병하는 거 보래이. 간이 바짝바짝 마른다. 못 본다카이, 못봐.¹⁴⁾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지역 주민에 대한 탄압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한 행위자 주체와 이에 저항한 밀양 주민들의 관계는 선주민을 말살하고 신대륙에 이주한 정착민과 선주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착민 식민주의를 지나간 제국주의의 역사를 해석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현재의 식민성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다시 해석하고 정립하고 있다. 일국 내 대도시화 과정에서 지방의 ‘토착적 삶’이 파괴되고, 젠트리피

14) 김말해, <“이걸 우째 이고 왔는교?”>, 밀양 구술 프로젝트, 『밀양을 살다』, 오월의 봄, 2014, 37쪽.

케이션으로 인한 주민의 강제 이주, 자원 개발을 위해 지방을 초토화 시키는 과정 등을 도시화 정착민 식민주의(urban settler colonialism)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연구 경향도 이러한 정착민 식민주의 해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자신들의 새로운 거처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른바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산과 재생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선주민은 동원되고, 강제 이주를 당하고 마침내 절멸되었다. 밀양 주민들은 수도권의 ‘쾌적한 삶’(혹은 ‘문명화된 삶’)을 위해 자원, 토지, 그리고 삶 자체를 추출 당하고 마침내 그들의 원래의 삶 자체는 파괴되어 버렸다. 기후 위기 문제를 계기로 환경 부정의에 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환경 부정의에 대한 논의는 “지방 문제”와는 다른 글로벌한 문제로 구별된다. 이런 사유 방식으로 인해 지방 사람들은 이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지닌 일련의 연구자들이 이른바 지방의 환경 부정의를 정착민 식민주의 방법론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¹⁵⁾

1950년대 후반 이후 대공장, 산업단지에서 시작하여, 고층건물, 아파트 단지, 쇼핑몰, 긴 노동 시간과 이를 보상하는 짧은 여가 시간 등 수도권의 낮과 밤을 위해 지방의 자원, 토지, 인구는 아무 제한 없이 약탈되었다. 이런 인과 관계 혹은 선후 관계는 이른바 지방소멸 담론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제 ‘진실’로 간주되는 시대에 들어서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대도시

15) 라우라 A 브레이는 환경 부정의를 논하는 학자들이 이를 지방의 환경 부정의(Rural Environmental Injustice) 문제와 분리함으로써 지방 사람들은 이중의 차별과 배제, 즉 공간적 배제와 인종적 배제라는 장벽에 갇히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중의 배제를 비판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정착민 식민주의 이론을 환경 부정의 연구에 연결하기 시작했다고 논한다. Laura A. Bray, "Settler Colonialism and Rural Environmental Injustice: Water Inequality on the Navajo Nation", *Rural Sociology*, Vol. 86, Issue 3, 2021, p.588.

서울에서 군 단위 지방으로 이주한 “아줌마 연구자”의 현장기술지는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이 “이민”과 같은 현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6년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광역시로 잠시 옮겼다가 2019년 경상북도 군 단위의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다. 당연한 듯이 이용했던 지하철과 백화점, 대형 마트, 스타벅스가 전혀 없는 동네에서 살게 되면서 나는 한국말이 통하는 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느낌이었다. 말은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잘 통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생경한 사투리와 억양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무슨 뜻일까 끝없이 유추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지역의 대학 두 군데에서 강사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한 곳은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국립대였으며, 또 다른 곳은 소멸을 걱정하는 사립대학이었다. 두 개의 대학에 출강을 나가면서 그동안 서울에서 내가 봐왔던 대학과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0여 년 전쯤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 칸마다 휴지가 갖춰진 것이 아니라 화장실 입구에 휴지 두루마리가 있었다. 화장실의 각 칸을 이용할 사람들은 공용 휴지를 쓸 만큼 끊어서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급한 마음에 화장실 칸부터 들어가서 불일을 보다 보면 낭패를 당한다. 그런데 내가 출강하는 대학마다 그러한 방식으로 화장실 화장지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내가 운이 나빴던 것인지 화장실을 갈 때면 그 공동의 화장지마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편의점에서 휴대용 화장지를 사서 가방 안쪽에 넣고 다니게 되었다. 비상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대비해야 했다.(중략)

나는 지역소멸, 인구소멸, 나아가 대학까지 소멸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서도, 일상생활은 이어 나가야 했다. 대도시와 비교하면 사회 인프라는 정말 부족했다. 유아차나 휠체어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저상 시내버스는 거의 없었으며, 화장실을 가더라도 기저귀 교환대를 찾기 어려웠다. 대도시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수유실과 화장실이 그리웠다.¹⁶⁾

위의 글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오늘날 한국에서 서울과 지방은 ‘같은 나라’가 아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이민을 가는 것과도 같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무엇보다 “칸칸마다 설치된 화장실 휴지”로 상징되는 문명화된 삶의 편의와 쾌적함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지방의 삶의 형태는 “10여 년 전쯤 고속도로 휴게실”에서나 볼 수 있는 낙후되고, 저발전된 삶의 형태다. 10여 년 전쯤 고속도로 휴게실의 상황이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건 고속도로 정비가 국가에 의해 일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은 그런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먼 이국이다. 서울과 지방에서 사람들의 고민과 당면 문제, 삶의 고민 자체가 다르다. 이들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원이라 하겠다. 정확하게는 서울은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과 아이 학원의 레벨 테스트, 학원 스케줄”을 삶의 문제로 안고 산다면 지방은 소멸을 삶의 문제로 안고 산다. 즉 서울은 성장, 미래, 재생산을 안고 있는 세계라면 지방은 소멸의 운명을 안고 사는 이국의 낯선 땅이다.

서울에 살면서 일을 한다면, 대학소멸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한 인프라를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만 같았다. 이러한 고민을 할 리 없겠지 싶어서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 있다. 동시대의 서울에서는 미친 듯이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과 아이 학원의 레벨 테스트, 학원 스케줄이 문제라고 한다. (중략)

이럴 때면 마치 두 개의 한국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서울이나 지역이나 인구소멸은 때한가지지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다가온다. 지역의 대학은 입학정원 미달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인서울’ 대학 입시로 인해

16) 서나래, <혼란스럽고 복잡한 ‘진실의 세계’를 모르고 있었다 - 아줌마 연구자로 가까스로 살아남기③ ‘두 개의 한국’을 살아본다는 것>, 『교수신문』, 2024.04.03.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726> (검색일: 2024.05.15.)

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려고 한다.¹⁷⁾

지방과 서울이 “두 개의 한국”으로 분할된 현실을 날카롭게 묘사하는 이 글에서 “칸칸마다 설치된 화장실 휴지”로 상징되는 문명화된 삶의 편의와 쾌적함이 지방에 결여된 원인은 인구 소멸 때문으로 논의된다. 이런 논의 방식은 지방소멸에 공감하며 염려를 보내는 글에서 자주 발견된다. 앞서도 논의한 것처럼 지방에 ‘문명화된 삶의 편의와 쾌적함’이 ‘결여된’ 원인은 그런 ‘문명화된 삶의 편의와 쾌적함’을 서울에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 모든 것을 추출 당해온 역사와 사회 구조에 있다. 즉 인구가 소멸해서 지방의 삶의 쾌적함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서울의 쾌적함을 위해 지방을 약탈해 온 과정이 지방소멸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른바 신자유주의 ‘국토 개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형성된 ‘판교 라인’이 잘 보여주듯이 이른바 혁신 성장 동력, 미래 산업, 신산업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업화 되었다. 1970년대 이후의 국토 개발 계획에 의해 지방에 할당된 산업 구조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낙후된 산업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지구 북반부로 대표되는 신산업 구조로 재편하는 대신 지방을 낙후된 산업, 즉 지구 남반부로 대표되는 낡은 산업 구조에 고착되도록 강제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글로벌 노스와 경제, 인적 교류, 삶의 이동성에서 연결되는 권역적인 밀착성을 갖게 되었다. 반면 지방은 ‘낙후된 산업 자본주의의 낡은 유산’의 잔해와 약탈당한 가치조차 증명하지 못한 ‘선사시대’의 1차 산업을 끌어안고 뒤떨어지고 낙후된, 그래서 아직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글로벌 노스의 휴양지이자 떨감인 글로벌 사우스의 일부로 권역화

17) 위의 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서울과 지방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 내부 식민지 차원의 차별과 배제 차원의 격차로 환원할 수 없는 거대한 분리를 보이고 있다. 즉 “두 개의 한국”, 더 정확하게는 국가의 경계 안에 두 개의 권역으로 분리된 형태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울 주민들의 삶은 글로벌 노스의 주민들로서 이른바 문명화와 쾌적한 삶을 위해 지구 곳곳에 식민지의 영토, 주민의 신체를 땀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착민 식민자들의 삶의 양태와 다르지 않다. 서울의 상층 계급이 뉴욕, 도쿄, 파리, 서울을 이동하면서 다국적인 삶을 향유하며 재생산의 근거를 이러한 글로벌 노스라는 권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일국 내의 분열된 권역 귀속(regional belonging)의 차별화 덕분이다. 반면 지방의 주민들이 일터를 좇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를 따라 삶의 환경이 변경되는 방식 또한 지방 주민들이 글로벌 사우스로 권역상 귀속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이른바 한국에서 “지방소멸”이라는 담론, 이데올로기, 표상, 정책을 정착민 식민주의의 문제로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 목표로 삼는다. 물론 이는 지방에 대한 식민화의 성격을 유형적으로 정교하게 하거나 혹은 유형을 달리 분류해야 한다는 그런 종류의 논의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¹⁸⁾

18)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착민 식민주의 관점에서 연구한 우치다 준은 이런 연구가 일본의 사례를 정착민 식민주의의 다른 사례와 대조하여 유사성과 차이를 분류하려는 논의가 아니라고 밝힌다. 즉 “중요한 것은 일본인 정착민들을 유럽 모델의 그것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 자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점이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지역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전 지구적 체제의 하나로 정착민 식민주의를 생각하는 것이고, 늘어나고 있는 정착민들에 대한 연구 담론을 유럽의 사례들을 넘어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치다 준, 『제국의 브로커들: 일제 강점기의 일본 정착민 식민주의 1876~1945』, 한승동 역, 길, 2020, 49쪽. 이 연구에서 한국 사회의 ‘지방문제’를

정착민 식민주의는 군대, 경찰을 통한 학살과 강제 이주, 신체의 구속을 통한 노예화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정착민 식민주의가 구축되는 국가 기구를 통한 절멸과 노예화 과정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연구 아젠다를 구축하고 있다. 정착민 식민주의는 제국주의 전쟁의 산물이지만 정복 이후에는 교육, 산업화, 법, 제도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재생산된다. 예를 들어 도시화와 지역 동화 과정을 정착민 식민주의로 연구한 사례는 대표적이다.¹⁹⁾ 근대 산업화, 냉전 도시화와 개발 독재,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도시화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논의하는 연구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를 정착민 식민주의 연구 방법으로 재조명하면서, 특히 도시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정착민 식민주의가 군대나 경찰과 같은 강압적인 국가 기구를 통해서만 아니라 법, 제도, 학문과 같은 다양한 헤게모니 장치나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들을 통해서 합법화, 정당화, 자연화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법, 제도, 학문 등을 통해 정착민 식민주의가 정당화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인종화 된 지식이 생성된 과정을 밝히고, 이를 인종에 대한 앎을 생성하고 재생산하는 생성적 지식이라고 부른다.²⁰⁾ 이러한 생성적 지식은 인종차별을 표면에 내세웠던 인종 과학만이 아니다. 법과 학문, 문학과 예술은 인종 과학과 무관해 보이지만, 바로 그런 무관한(disinterested) 방식으로 인종주의적 앎을 과학으로 만

정착민 식민주의 연구 방법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19) Tomonori Sugimoto, “Urban Settler Colonialism: Policing and Displacing Indigeneity in Taipei, Taiwan”, *City & Society*, Vol. 32, Issue 2, 2019, pp.227-250.

20) Xine Yao, *Disaffected : The Cultural Politics of Unfeel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1.

든다. 인종화의 과정은 특정 집단을 문명화에 반하거나, 정착민 식민 국가에 적대적인 집단으로 구축하면서 이들의 특정한 자질(attribution)을 그 근거로 삼는다.

토마스 제퍼슨, 스탠리 스텐호프 스미스, 벤자민 러시는 아담 스미스의 동정 개념을 새로운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를 규제하기 위한 생명정치적 프레임 만들기와 접합했다. 이러한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의 생명정치적 프레임은 감정에 의해 규제되면서 자연화 되었는데 이때 정동적 행위자성은 개별 존재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생명정치적 스케일의 층위를 아울러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저작들에서 흑인과 원주민은 멍하고(dulled) 분별력이 없고(diminished), 고통과 정동적 표현이 부재한 특별한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저작들에서 이러한 속성(attribution)들로 인해 흑인들과 원주민들은 정착민 식민주의 민족 국가에 대해 궁극적으로 적대적이거나 배제되어야 할 존재로 지속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²¹⁾

감정과 정동적 행위자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의 생명정치적 프레임은 흑인과 원주민을 악마화 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을 특정한 표상 즉 “무감정하고”, “감정 반응이 느리며”, “속을 알 수 없는”, “침묵하는”, “고통에 둔감한” 존재들로 생성했다. 이러한 인종화 된 무감정한 존재들에게는 내면이 없는 대신, 이들을 발견하는 주체에게는 이들에게로 향하는 웅장한 내면이 존재한다. 그 웅장한 내면의 다른 이름이 감상주의(sentimentalism)이다. 이렇게 정착민 식민주의의 인종화 되고 젠더화된 생명 정치적 위계를 생성하고 재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이른바 정동 경제이다. 이러한 정동 경제는 식민지 정복 전쟁,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기행, 타자를 발견하는 문학 등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재생산되었다.

21) *ibid.* p.17.

오늘날 글로벌 플랫폼 시대의 콘텐츠 생산은 신자유주의 시대 오래된 정착민 식민주의의 정동 경제를 반복하거나 갱신하는 주요한 장치가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글로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여러 지역의 콘텐츠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이다. 여기서는 내용이나 제작 주체, 제작 환경에서 여러 대륙을 이동하는 콘텐츠 생산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타이완, 한국, 타이베이, 제주, 가상의 한계 취락을 이동하는, 대륙과 지역을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친밀성, 감정, 정동 경제가 이러한 이동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이단을 몰고 오는 환향년들: 세계로서 일본과 일본 문제로서 지방소멸/창생 서사

일본에서 지방 개념은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이 정의되고 재정의되었다. 박승현은 그간의 무수한 지방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스다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중앙(도쿄)의 의미 변화와 지방과의 관계, 중핵 도시론 같은 선택과 집중 등의 논의 때문이라고 해석한다.²²⁾ 지방에

22) “1960년대의 ‘도시화와 커뮤니티’, 1970년대의 ‘일본열도개조론’, 이에 이은 ‘디스커버리 재팬’, 1980년대의 ‘마을 만들기’와 ‘일촌일품운동’까지, 일본사회의 ‘지방’은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의되고 재정립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미래상이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고흥화의 경향이 선명해지고 지방의 인구증가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199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도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성’, ‘공생사회’를 모토로 ‘풍요로운 지방 만들기’, ‘21세기의 지방도시 구상’, ‘지역재생’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었다. 또한 도쿄 일극중심에서 탈피하여 지방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다. 한편,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대규모의 방사능 오염 이후 재해 복구와 지역 재생은 일본 사회가 봉착한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 이주와 가

대한 문화콘텐츠 생산도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지방소멸과 관련한 콘텐츠의 물량 공세가 엄청나다. ‘한계취락’, 청년 이탈, “지역으로 돌아가자”를 모토로 내건 서사가 대거 생산되었고, 영화 <리틀 포레스트>²³⁾ 연작은 그런 흐름의 산물이다. 이런 흐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 부흥=일본 부흥’ 서사로 이어져서 아침 드라마 <아마짱>²⁴⁾의 대히트로 정동적 전환을 이루기도 했다.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 수산물과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오염 공포가 일본 국내외로 번져 극대화된 시점에서 드라마 <아마짱>은 동일본 바다의 아름다움, 싱싱한 수산물, 해녀들이 갯 잡은 수산물을 나눠 먹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매일 그려내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공포를 완화하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방사능 공포와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는 만연한 불안감을 잠재웠다. 주제가였던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마짱>의 성공과 이에 담긴 정동 정치는 동일본 대지

설주택의 고독사 문제 등 후쿠시마 재해 복구의 과정에 대해 ‘부흥 재해’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마스다 보고서 이후에는 ‘지자체 붕괴’, ‘지역재생의 실패학’과 같이 이전보다 과격하고 비판적인 제목의 저서들이 눈에 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다면, 마스다 보고서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관심에 비해 그 내용이 새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논의들에서 지방 살리기의 문제가 지방에 국한되고, 중앙은 흔들림 없이 빛나는 존재라 한다면, 마스다 보고서의 도쿄는 인구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중앙’이며, 재해의 위험마저 동반한 ‘중앙’이다. 또한 한계취락의 논의가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방소멸의 핵심은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인구이동이 일본 전역의 인구 급감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은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공생을 피해야 할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설정 속에서 지방의 중핵도시들은 ‘최후까지 버티면서’ 인구를 잡아둘 수 있는 방어선으로서의 임무를 맡게 되고,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도쿄라는 인구의 블랙홀로 빨려들어 일본사회는 파국을 맞이하리라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박승현, 앞의 글, 170-171쪽.

23) <리틀 포레스트>는 이가라시 다이ске의 만화 작품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고단샤의 《월간 애프터눈》에서 연재되었다.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모리 준이치 감독, 2014.),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모리 준이치 감독, 2015.)으로 제작, 개봉되었다.

24) 이노우에 츠요시, <아마짱>, 2013.

진 이후, 방사능 공포와 일본 멸망론이 지역 부흥론을 통해서 어떻게 완화되는지 잘 보여준다.

최근 지역 관련 서사에서는 이러한 부흥 서사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부흥 이후의 지옥도를 다루는 서사가 두드러진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등장한 부흥론과 부흥론의 실패와 맞물려 등장한 마스다 보고서(지방 소멸론), 그리고 이의 뒤를 잇는 “부흥 재해”, “지자체 붕괴”, “지역 재생의 실패학” 등의 담론으로 이어지는 일본에서의 지방 담론의 추이를 잘 보여준다. 한편 지방에 대한 부정적 묘사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지방소멸 담론, 특히 마스다 보고서에 드러난 지방 책임론과도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즉 “마스다 보고서는 경제성장기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한 것이 도시가 지방의 젊은이들을 ‘끌어당긴 것’이라면, 지금의 도시 집중은 지방의 고용기반이 무너져 젊은이들을 ‘밀어낸 것’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²⁵⁾

그런 점에서 드라마 〈하야부사 소방단〉²⁶⁾, 영화 〈빌리지〉²⁷⁾는 “부흥 재해”나 “지역 재생의 실패학”이 부상하는 일본에서의 지방 담론의 추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 그 지옥도의 향방은 다소 다르다. 또한 두 드라마에서 모두 20-30대 여성이 지방 공동체의 폭력에 의해 ‘밀려난’ 존재로 그려진다. 마을이 이들을 포용해야만 한다는 서사 역시 지방소멸 담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표면적으로 지방은 이 여성들을 인구 재생을 위해 포용해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우지만, 두 드라마 모두 여성은 지방

25) 박승현, 앞의 글, 167쪽.

26) 츠네히로 죠타, 야마모토 다이스케, 〈ハヤブサ消防団〉 9부작, 일본 TV 아사히 2023.07.13. ~ 2023.09.14. 원작 소설도 번역 소개되었다. 이케이도 준, 『하야부사 소방단』, 천선필 역, 소미미디어, 2023.

27) 후지이 미치히토 (각본·제작), 〈빌리지〉, 2023. 후지이 미치히토는 영화 〈신문기자〉의 감독으로도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에 대해 적대적이고, 불안하며 위험한 잠재성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지방소멸 담론이 이른바 청년 포용, 여성 포용을 내세우지만 이 포용의 논리가 젠더화 되고 인종화 된 배제와 절멸의 위계를 강화하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일본의 지방소멸 담론을 그대로 차용한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하야부사 소방단〉에서 지방 마을 공동체는 ‘이단’의 침입과 이들에 의한 자원 추출, 마을 토지와 주택을 점령하는 약탈적인 토지 매입 등에 의해 위기에 처한다. 반면, 〈빌리지〉에서 지방 마을은 마을의 지배 세력에 의해 쓰레기 소각장이 유치되고 마을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몰락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쓰레기 처리 작업반이 되어가지만 지방 정부와 자본가 그룹은 이를 지역 부흥이라고 강변한다. 〈빌리지〉는 지방에 대한 약탈적 식민화가 어떻게 부흥의 논리로 주민을 동화시키는지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또 〈하야부사 소방단〉은 지방 마을을 파괴하는 적으로 이단 종교 집단을 설정하고, 마을에서 추방된 여성을 이 이단의 스파이로 설정하는 등 인종화 된 배제와 젠더화 된 차별을 반복하는 지방소멸 담론의 전형을 반복한다. 반면 〈빌리지〉는 이러한 지방소멸 담론의 약탈적인 식민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서 지방은 중앙(도쿄)과의 대비 속에 위치하며, 중앙인 도쿄가 국가 혹은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타이완과 한국의 지방소멸 서사와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타이완과 한국의 지방소멸 서사는 국가 내부의 위계와 관계(중앙과 지방)만이 아니라, 권역적인 연결성(북미 지역과 중국 등)과 귀속(belonging)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 일본의 지방소멸 서사에서 지방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건 중앙이라면 타이완과 한국에서 지방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건 한편으로는 중앙이지만, 이

중앙의 인구 역시 국외의 다른 권역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지방소멸 서사에서 세계는 중앙(도쿄)과 지방으로 구획되어 존재하는데 이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형적인 서사이기도 하다. 즉 국가로서 일본이 세계와 동일화되며, 일본 바깥의 세계는 없다. 특히 세계와 동일화된 일본(세계의 중심으로서 일본)의 상징적 장소가 바로 도쿄이다. 따라서 일본의 지방서사에서 이른바 글로벌한 것은 도쿄와 동일화된다. 심정명은 일본의 세계는 도쿄와 도쿄가 없는 세계로 나뉜다고 해석한다. 즉 지방은 “도쿄가 없는 세계”인데, “지방의 삶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도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그 문화는 도쿄 혹은 그것이 대표하는 글로벌한 시선을 통해 ‘촌스러운’ 것으로 차등화 된다.”²⁸⁾

〈하야부사 소방단〉은 이케이도 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기후현 출신인 이케이도 준의 소설 〈하야부사 소방단〉은 팔백만정(八百万町)이라는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드라마가 크게 성공하여 이후 팔백만정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기후현의 야오츠초에 드라마 세트장과 관광 시설을 포함한 하야부사 뮤지엄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²⁹⁾ 이케이도 준은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로도 잘 알려진 작가이다. 이

28) 심정명, 「편재(遍在)하는 도쿄 혹은 비(非)도쿄 '지방'을 상상하는 어떤 방법」, 『일본비평』 제16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136-157쪽.

29) “기후 현 출신의 작가, 이케이도 준씨의 소설 〈하야부사 소방단〉의 무대의 모델로 여겨지는 야오츠 초에 1월, 이 드라마의 세트 등을 전시하는 관광 시설이 오픈하게 되었다. 기후 현 출신의 작가, 이케이도 준씨의 소설 〈하야부사 소방단〉은 ‘팔백만정’이라고 하는 가공의 마을이 무대인 미스터리 작품으로, 작중의 묘사 등에서 야오츠 초가 모델로 되어, 금년 여름에는 민영방송에서 드라마가 방송되는 등 주목을 모으고 있었다. 야오츠 초는 금년 7월, 마을 부흥의 일환으로 이케이도씨도 공인(公認)한 하야부사 프로젝트를 시작해 다양한 기획을 개최하고 있어, 1월 8일에는 야오츠 초의 인도의 언덕 공원에 하야부사 뮤지엄을 오픈하게 되었다. 시설에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방문하고 있던 선술집의 세트를 통째로 전시하는 것 외에 이케이도씨 스스로 정정한 육필 수정 원고나, 소설 〈하야부사 소방단〉이 올해 문학상을 수상할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쥬인 시즈카씨의 수상작 선정 비평도 전시할 예정이다. 야오츠 마치 지역 진흥과의 아

케이도 준의 소설은 많은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2021년 도쿄 올림픽 기념으로 제작된 <육왕>, 일본이 세계 제일의 로켓 과학 기술을 갖게 된 과정을 변두리의 작은 과학 연구소에서 찾아낸 <변두리 로켓>, 약탈적인 대기업에 의해 인수합병 위기에 처한 아오시마 제작소(센서 기술 개발사)와 회사 소속의 사회인 야구팀 아오시마 야구부를 지키려는 고군분투를 그린 <루스벨트 게임>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근대를 상징하는 강소 기업, 상사 맨, 전문화된 장인에 가까운 기술자들과 이들이 만드는 마을(공동체)과 그 마을을 위협하는 세력(약탈적 기업, 이기적인 권력자들 등) 사이의 치열한 전투를 그리는 작품이 주를 이룬다. 무대가 국가 경제, 기업, 마치코바(작은 마을 기업), 한계 취락으로 바뀌면서도 공통된 문제의식은 몰락과 위협에 맞서서 끝까지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또 마을을 지키기 위한 장인들의 고투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초과한다.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한자와 나오키의 정신이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육왕>의 일본 대표 마라톤 선수와 마라톤 슈즈 개발자 등은 전형적이다.

<하야부사 소방단> 역시 이케이도 준의 전작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무대가 대도시의 마치코바에서 한계 취락으로 변화되었다. 추리소설 히트작을 냈으나 후속 작품을 내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던 작가 미마 타로(나카무라 토모야)가 아버지 사후 비워둔 고향 집을 팔라는 한 기업의 편지를 받고 귀향해서 동네에 잇달아 벌어지는 방화 살인을 해결하고 소설가로도 성공하는 이야기이다. 미마 타로는 잠시 들렀던 고향집에서 마을 민

카츠가 타쿠야 주사는 “이케이도씨로부터 세트의 전시를 제안 받아 실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이)세세한 부분을 보고 직접 느끼고 마을을 발견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케이도 준의 <하야부사 소방단> 드라마의 관광 시설이 오픈(池井戸潤さん「ハヤブサ消防団」ドラマの観光施設がオープンへ)>, NHK 뉴스, 2023.12.17. <https://www3.nhk.or.jp/lnews/gifu/20231227/3080012690.html> (검색일: 2024.05.15.)

간 방위단인 소방단 사람들을 만나 소방단이 되고, 점차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지역 재생 드라마 제작을 위해 만난 타키치 아야(가와고치 하루나)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실은 방화 살인은 그녀를 앞세워 마을을 점령한 이단 집단의 소행이었다. 타키치 아야는 본색을 드러내고 마을을 위협하는데, 미마 타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끔 주저한다. 결국 사랑의 힘으로 미마 타로가 타키치 아야를 마을 사람들 편으로 돌려세우고 이단을 몰아내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드라마는 미마 타로와 타키치 아야가 ‘행복하게 고향에서 잘 살았습니다’라는 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이 행복한 결말은 한편으로는 잔혹 서사를 배면에 은닉한다. 특히 타키치 아야가 ‘이단 종교 집단’에 빠지게 된 것은 유년기 고향에서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 전전하게 되었고, 도쿄에서도 성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내몰리게 된 과거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이다. 그러나 타키치 아야의 역사는 드라마에서 배면화되고 오로지 마을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미마 타로를 사랑하는 증오와 사랑의 분열 상태에 놓인 존재로만 그려진다. 한편 미마 타로는 타키치 아야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드라마는 타키치 아야를 ‘속내를 알 수 없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존재로 그리며 시청자들에게 그녀의 본심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미마 타로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야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의심하고 경계하지만, 미마 타로는 끝까지 그녀를 믿어준다. 미마 타로의 선량한 믿음과 헌신적 사랑,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야의 불안정하고 분열적인 내면과, 마을에 대해 품고 있는 적개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이단 종교 집단이 마을 대부분의 집과 토지를 사들인 후 ‘새로운 이주민’으로 마을을 점령한 후에야 아야가 이단의 앞잡이었다는 게 밝혀진다. 드라마에서는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위협에 빠트리고, 이단을 몰고 돌

아오는(환향년과 이단) 마을에 적대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그리고 끝내 그녀를 마을에서 내쫓고 귀향 이후에도 그녀의 일과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책임은 추궁되지 않는다. 드라마는 미마 타로의 사랑의 승리를 따라 하야부사 소방단이 마을을 지키는 행복한 일과 소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린다. 아야는 여전히 내적으로 불안하여 미마 타로와의 사랑은 여전히 불안하고, 마을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남아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이며, 친밀성의 관계에서도 위협과 배신의 위협 요소이고 마을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겨진다.

한편 마을이 이단에게 장악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은 일본의 식민지 정복 전쟁과 장악 과정의 정착민 식민주의를 의심 없이 반복한다. 방화와 살인을 일삼는 이단과 이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의용 소방단의 활약은 역사적으로 정착민 식민주의를 정당화한 민간의 마을 지키기 운동(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학살에서 자이니치를 향한 증오 선동까지)의 역사 없이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하야부사 소방단>에서 그 추방과 절멸의 과정과 역사는 ‘위기’, ‘방어’, ‘소명’과 ‘내 땅을 지키는 일’ 혹은 ‘지키는 일로서의 사랑’이 되었다. 그 사랑이 학살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은 이 마을 누구에게도 설득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추방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드라마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 드라마를 사랑 드라마로 볼 수 없는 이들에게 타키치 아야(환향년)에게 놓인 선택지는 착잡한 마음 없이 볼 수 없다. 환향년은 힘을 키워 쫓겨난 마을을 되찾거나(이단과의 결탁) 아니면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 편이 되어(사랑) 마을을 지킨다. 후자가 전형적인 정착민 식민주의와 이에 대한 동화라는 ‘선택지’라면, 전자는 비타협적 ‘이화’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것은 드라마가 제시하는 선택지이지만, 어쩌면 정착민 식민

주의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제시되는 현실의 선택지이기도 하다.

환향년 타키치 이야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있다. 나도 같이 적을 죽여, 마을의 일원이 되는 일, 그게 드라마가 보여주는 사랑의 결말이다. 근대 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면서 국민은 적을 죽일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하기를 합의함으로써 국민 되기에 동참한다. 드라마는 사랑(애국)과 학살의 무모순적 동일화로서 국민 되기와 동일한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즉 국가를 사랑하는 일, 그 연장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이 적을 죽일 '권리'에 동의하는 일이라는 전쟁의 논리와 사랑이 동일화되는 기제의 드라마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되기에서 여성은 언제나 포함되면서 배제되어왔다. 여성은 국민이 될 수 있으나, 언제나 잠재적인 배신의 가 능태로 존재해왔다. 그래서 사랑이 위태로운 건, 드라마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환향년 타키치 이야의 정신 상태 때문이고,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마을을 배신할 잠재태로 존재한다. 길고 긴 탈식민주의 저항의 역사는 그런 선택지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동화나 강요된 화해임을 알려준다. 길고 긴 페미니즘 투쟁의 역사는 그런 선택지는 “동화냐 차이나” 같은 어느 쪽 도 선택일 수 없는 '선택이라는 역설'만 남겨두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반페미니즘 논자들은 이러한 역사를 마치 페미니즘이 동화를 선택하느냐, 차이를 선택하느냐를 두고 시행착오를 반복한 것처럼도 비판한다.

조앤 W. 스콧이 차이나 동화나라는 '선택지'는 선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근대의 패러독스라고 지적했듯이, 그 선택지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정착민 식민주의가 제시하는 동화냐 차이나라고 하는 바로 그 선택지야말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그 선택의 패러독스를 보여준다는 것이다.³⁰⁾ 페미니즘과 탈식민 저항의 정치가 지향하는 방향은 오늘 우

30) 조앤 W.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이화진·최영석 역, 앨피, 2017.

리가 서 있는 국가, 시민, 사회, 제도가 제시하는 선택지를 넘어서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역설을 보여준다. 드라마에서 환향년 타키치 아야가 회개해서 ‘우리의 미마 타로와, 우리의 하야부사를 지키는 결말’이 무언가 뒤끝을 남기고, 결국 ‘그녀는’ 우리를, 우리 마을을 배신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녀는 어떻게 해도 동화도 이화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단을 끌고 들어와 마을을 초토화하는 환향년이 두렵고 역겨운 건, 그녀들의 존재 자체가 이 마을이 학살과 추방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역사를 환기하는 틈새이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마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려 죽을힘을 다해 애써도, 결코 그 불안은 잠들지 않는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탄생한 것을, 아마도 우리는 겨우 윤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4. 4대륙의 친밀성과 ‘원주민’의 질병: 병리적 신체 혹은 ‘타이완’이라는 소멸 신체성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 지배, 중국 국민당에 의한 타이완 국가 수립과 세계 최장 기간 계엄 통치로 상징되듯이 지배 집단이 바뀌면서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에 의한 약탈적 식민화의 역사를 이어왔다. 타이완을 구성하는 종족 집단 역시 다양하고 종족 집단의 언어와 문화 역시 매우 이질적이다. 또 역사적인 정착민 식민주의가 수도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와 중심화로 이행되어 도시화를 통한 정착민 식민주의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한국과 함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이후 국민당의 장기 집권 과정에 대한 반발로 상대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호의적이고, 미국과

중국의 냉전 권력 구도 속에서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런 점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유사하지만, 한국에서 타이완에 대한 비교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지방소멸과 지방 담론, 정착민 식민주의와 관련해 타이완은 일본과 함께 한국의 지방 담론의 역사와 관련해 중요한 비교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의 하나로 드라마를 통해 지방 담론과 정착민 식민주의의 정동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타이완 영화 <미국 소녀>³¹⁾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던 량팡안이 타이완(정확하게는 타이페이)으로 돌아오는 귀향 장면에서 시작한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 편한 모녀는 아버지로 대표되는 ‘중국어 화자’의 세계로 돌아오는 중이다. “아빠 만나면 중국어로 말해야 해”라고 아이들을 단속하는 엄마. 타이베이, 캘리포니아, 다시 타이베이로 귀향하는 모녀의 삶의 반경 변화를 거쳐 중국어는 아버지의 세계를, 영어는 엄마와 딸로 구성된 모녀들의 친밀성의 세계가 된다. 영어, 기독교, 캘리포니아는 모녀를 하나로 연결하는 친밀함과 귀속감의 원천이다. 아버지는 업무로 항상 중국에 출장 중이고 부재중이다. 중국어의 세계는 이 가정의 경제적 근원이자, 상징적 질서로서 가부장적 남성성과 연결된다면,

31) 펑아이 피오나 로안(Feng-I Fiona Roan, 응우웬핑이阮鳳儀) 감독, <미국 소녀>, 2021년. 응우웬핑이 감독은 타이완계 미국 작가이자 감독이다.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가족과 함께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열심히 살고 있는 소녀, 량팡안이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다시 대만으로 복귀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 어쩔 수 없이 바뀐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량팡안은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문제와 마주한다.” 2003년 사스 대유행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도 하다. 응우웬핑이는 미국, 유럽, 타이완과 동아시아를 오가는 삶을 이어가며 이러한 대륙 간 교차와 이동을 창작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도쿄, 파리, 시카고, 쿠알라룸푸르를 가장 영향을 받은 5개 도시로 꼽기도 했다. <응우웬핑이의 창작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좋은 가족 영화는 많은 사회 문제를 투사해 낼 것이다>, 『500輯』, <文藝視角> 인터뷰, 2024.01.09.

영어의 세계는 모녀 관계, 친밀성, 행복과 충만함, 우정과 환대, 여성적 친밀성의 세계와 연결된다.

이러한 젠더화 된 귀속감, 연결성과 여기 연결된 가치, 감정을 실어 나르는 정동 구조는 엄마가 암에 걸리고 우울증적 상태에 빠지면서 균열을 이루다가 마침내 폭발한다. 량광안은 “엄마를 증오한다.”는 작문을 학교에 제출하고, 엄마는 “너 좋으라고 미국에 가서 암 걸렸다”며 딸을 원망하게 된다.

엄마와 딸의 화해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은 채, 엄마가 암에 걸린 원인과 책임은 가족들에게 전가된다. 모두가 나름의 죄책감에 빠져 있지만, 이 죄책감은 가족 관계를 증오와 원망의 악순환에 빠트릴 뿐이다. 엄마는 정말 딸 때문에 미국에 가서 암에 걸린 것일까? <미국 소녀>는 2003년 사스 사태를 배경으로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소녀>는 미국 이민에 대한 타이완 사회의 정동 정치를 가족 서사를 통해 친밀성의 차원에서 섬세하게 그려낸다. 2023년 타이완에서 출간되어 큰 호응을 얻은 『인생2.0, 사는 법을 바꾸다: 미국 이민자에 관한 모든 공략법, 비자, 영주권부터 투자이민 필수 가이드까지(人生2.0, 換一種活法: 美國移民全攻略, 從簽證, 綠卡到投資移民必備指南)』를 소개한 기사에서는 타이완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주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교육적 고려. 미국의 **성숙하고 완벽한 교육 시스템**은 많은 부모들에게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다.

*사업/창업 고려. 미국이 보유한 시장과 자원은 업무와 기업가 정신, 특히 **기술 혁신 또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서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투자 고려.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매우 **건강하고 활기차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나 비즈니스 마인드를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규제와 허점을 통해 폭리를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³²⁾(강조 인용자)

미국 교육의 “성숙하고 완벽함(成熟又完善的)”이라거나 경제활동을 위한 미국의 “너무나 훌륭한 기반 시설(很好的立基)”, “투자하기 좋은 건강하고 활기찬(健康而且活絡) 비즈니스 환경”은 모든 점에서 타이완과 비교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대조는 앞서 두 개의 한국 즉 서울과 지방에 대한 비교와 거의 일치한다. 즉 서울과 지방, 타이베이와 지방의 차이는 한국과 미국, 타이완과 미국 사이의 위계화 된 차별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친밀성의 구조 변동을 그리는 타이완 서사에서는 이렇게 지방, 국가, 권역 사이의 권력적 위계화, 귀속감과 탈귀속화 현상(dis-belonging)이 세밀하게 드러난다. 한편 미국과 타이완이라는 비교와 대조에는 타이완 사회의 또 다른 차이들은 비가시화 되어 있다. 즉 영어와 중국어 세계로 환원될 수 없는, 객가어, 민난어, 무수한 선주민 언어의 세계는 이런 대조에서 사라진다. 미

32) 〈爲何大家想移民去美國? 台灣人去大有可爲? 綠卡的3大好處(왜 다들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합니까? 타이완 사람이 가면 장래가 촉망된다? 그린카드의 이점 3가지)〉, 『遠見雜誌』, 2023.12.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教育考量。美國成熟又完善的教育體系，是許多父母理想的教育環境

*工作／創業考量。美國擁有的市場和資源，在工作和創業的考量上，有很好的立基點，特別是在科技的創新或是商業模式的創新，都能有亮眼的成績表現。

*投資考量。整體商業環境是很健康而且活絡的，對於有商業意識的人或是想要增強自己商業意識的人來說，美國這個大市場能夠帶來的價值，是其他國家無可比較的。也因此，投資人想要透過監管的漏洞賺取暴利是很困難的事

邱翊哲·錢家萱·李政銳·姿伶·林佩姿, 『人生2.0, 換一種活法: 美國移民全攻略, 從簽證、綠卡到投資移民必備指南(인생2.0, 사는 법을 바꾸다: 미국 이민자에 관한 모든 공략법, 비자, 영주권부터 투자이민 필수 가이드까지)』, 時報文化出版企業股份有限公司, 2023, 12.

국과 타이완이 편이 시설, 기반 시설, 활기에서 대조되고 위계화 되는 방식은 타이베이와 객가어와 민난어, 선주민 언어 사용 지역인 지방 사이의 대조와 위계화에서 반복된다. <미국 소녀>에는 이러한 차이는 비가시화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타이완 드라마 <차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소녀>에서 영어는 이러한 “제대로 갖춰진 세계”를 상징한다. 미국 학교에서 1등만 하던 량광안은 타이완 학교에서는 꼴등을 면치 못하고, 불량 학생 취급을 받고 마침내 학교의 문제아가 된다. 반면 중국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집안 경제의 원천이지만 기쁨이나 활력과는 거리가 먼, 무심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드러난다. <미국 소녀>에서 엄마의 암은 사스만큼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엄마는 딸의 미래와 기쁨, 행복을 위해 헌신했지만, 암을 얻은 것 말고는 미국에서 얻은 게 없다. 기독교 신자인 엄마는 타이완의 문화 전체에 이질감을 느끼며 미국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갖고 있으나 병은 그 모든 애착 관계를 파탄시키는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 <미국 소녀>에서 엄마의 암과 투병은 무심하고 엄마에게 감응하지 않는 경제적 인간인 아버지와 그로 대변되는 중국어의 세계, 이와 분리되려고 하는 엄마의 캘리포니아에 대한 애착, 타이완에 대한 경멸과 부적응, 그리고 엄마에 대한 증오와 죄책감으로 모녀 관계의 정서적 애착 자체를 거부하는 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엄마의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물로 그려진다. 즉 엄마의 암 투병은 무심하고 감응 역량이 없는 가부장과 애착 관계를 파탄 내고 미국을 향한 애착과 희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존재론적 전쟁 상태의 표상이기도 하다. 이런 존재론적 전쟁 상태는 한편으로 젠더화 된 타이완의 위치성을 흥미롭게 드러낸다. 또 엄마의 암이라는 병리적 상태는 경제적 활력의 원천이지만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중국 대륙과 “모든 기반 시설이 완벽한” “활기와 성숙함”의 세계이지만 모든 오래된 애착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미국 대륙 사이에

서 발생한다. 리사 로우는 친밀성이 개인이라는 개별적 신체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하나의 인간 신체들 사이의 정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대륙 간의 역학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³³⁾ <미국 소녀>에서 미국 대륙이 교육, 경제, 투자에서 완벽함과 활기와 같은 좋은 기반 시설을 갖게 되고, 중국 대륙이 모든 경제의 원천이 된 대신 엄마는 암이라고 하는 병리적 상태와 질병에 빠지게 된다. 리사 로우의 말을 빌리면 미국 대륙의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완벽함과 중국 대륙의 경제적 완전성은 타이완의 경제적 파괴와 친밀성의 파괴, 존재론적 불안정화와 병리적 신체화를 대가로 획득된 것이다. <미국소녀>는 이처럼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 대륙 사이에서 벌어지는 귀속을 둘러싼 전쟁을 친밀성의 구조를 통해 인상적으로 그려낸다. 또 엄마가 앓는 암과 영화 전체에 스며든 사스는 이러한 대륙 간 전쟁이 개별 신체들의 상태로 변용된 결과물로 그려진다. 즉 암과 사스는 단지 비유나 상징이 아니며, 대륙 간 전쟁이 생성한 신체들의 실질적 상태이다. 물론 이 신체적 상태는 구체적으로는 엄마의 몸으로 현현하는데 이 젠더화 된 신체성은 한편으로는 타이완의 주권성(국체)을 병리적 상태로 암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영화 <미국 소녀>에는 중국어의 세계와 영어의 세계라는 두 대립 속에 타이완 내의 비중국어 세계는 철저히 비가시화 된다.

최근 개봉한 드라마 <차금(茶金 Gold leaf)>은 이차 세계 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파시즘 권역과 반파시즘 권역, 냉전기 반공 진영(미국을 중심으로 한)과 공산 진영(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이에서 '지방'이 어떻게 구축되고 변형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다. 린권양 감독은 조현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심도 깊게 그린 <우리와 악 사이의 거리(我們與惡

33) Lisa Lowe, *The Intimacies of Four continent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5.

的距離)로도 잘 알려져 있다. 〈차금〉은 하카어(꺄가어) 드라마이다. 1950년대 신주현 베이푸향의 유명한 차 상인 집안의 외동딸인 장아신이 차 사업을 지키기 위해 국민당 정부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이다.³⁴⁾ 〈차금〉은 현재 타이완이 찾아낸 농사는 있으나 차 사업은 없는 기이한 경제 구조로 전락했고, 또 차 사업의 거점이었던 베이푸향의 지역 경제가 산업화에 실패하고 1차 산업에 고착되게 된 과정을 국민당 정부의 독점과 통제와 탄압 과정을 통해서 날카롭게 파헤쳐나간다. 지역의 차 산업을 일으키려는 장이신과 미국 통역관으로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귀향한 리쿤카이(리쿤카이)의 비극적 사랑이 〈차금〉의 또다른 서사 축을 이룬다. 미국의 지원과 국민당과의 타협을 통해 가까스로 차 사업을 이어가던 장이신과 리쿤카이는 리쿤카이가 국민당에 의해 체포되고 사형당하면서 결국 차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장이신과 리쿤카이의 사업도 사랑도 중국과 미국 사이의 냉전 역학 관계에 일방적으로 지배되며, 이들이 일구고자 한 고향 베이푸향의 경제와 공동체 역시 미국과 중국의 역학에 의해 파괴되고 소멸되어 버린다. 〈차금〉에서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는 국가나 중앙에 의해 지배되고 종속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착민 식민주의 집단에 의해 약탈된다. 즉 지방의 경제와 공동체가 소멸된 역사는 국가와 지방의 대립이나 중앙으로 상징되는 국가와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비와 위계를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정체는 모호하고 흐릿하며, 지역을 지배하는 역사적인 지배 집단은 당대의 전지구적인 권력 관계의 변화와 연동하여 바뀌어간다. 즉 지역의 지배 집단이 일본과 연계된 집단에서 미국, 중국과 연계된 집단으로 변해온 것이다. 이는 지방소멸이 중앙, 그리고 중앙으로 상징되는 국가

34) 드라마의 원작은 랴오원판(廖運潘)의 『차금 시절』로 실제 베이푸향의 차 상인 장아신의 사위이다. 드라마는 장아신의 사위의 실화를 장아신의 딸의 이야기로 변형해서, 여성 주인공이 지역 기업가로 성장하고 실패하는 여성 서사로 재구성했다.

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그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의 지방 담론과 너무나 이질적이다. 한국의 지방소멸 담론은 일본에서 수입되었지만, 막상 실제의 지방소멸의 구조는 타이완과 더 유사하다.

5. ‘무심한 양민’에서 ‘포용적인 토착민’까지: 정착민 식민자로서 “육지 것들”과 무국가 상태로써 토착적인 것

한국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³⁵⁾와 <웰컴 투 삼달리>³⁶⁾는 지방에 대한 지배적인 정동 정치가 힐링에서 소멸로 이행하는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텍스트다. 지방소멸 담론과 그 반향이 변해가는 과정을 제주를 배경으로 한 두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토착 공동체를 정치 사회적 결사체가 아닌 혈족 공동체로 보는 식민주의가 신자유주의적인 지방경관 생산과 지방 소멸 담론에서 반복되면서도 변용되는 방식을 두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래된 정착민 식민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과정에서 이른바 토착 공동체의 종족들은 폭도와 양민이라는 분류 체계에서 배타적 토착민과 포용적인 토착민이라는 분류 체계로 강제로 이행되고 있다. 또 이런 이행은 지방소멸 담론이 지방 인구를 빨아들이는 중앙이라는 구도에서 청년을 몰아내는 배타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방의 자기 책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소멸 담론에서 지방은 소멸의 책임을 자기책임으로 강제적으로 짊어져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정착민 식민 국가가 수행한 학살과 식민화와 배제의 책임은 사라지고

35) 이동규(제작), 장정도(책임프로듀서), 김성민, 김누리(프로듀서), 김규태, 김양희 외(연출), 노희경, 강정미 외(극본), <우리들의 블루스> 20부작, 2022.

36) 차영훈(연출), 권혜주(극본), <웰컴 투 삼달리> 16부작, 2023.

오로지 배타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방에 대한 인종화 되고 젠더화 된 패러다임이 지배적이 된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지방, 탈지방, 권역화로의 결속의 관계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친밀성의 역사와 구조 변동의 맥락에서 다룬다.³⁷⁾ 어려서부터 한동네에 살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들의 인생행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아내와 딸을 미국으로 보내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한수는 성공의 모델이고, 가족이 유럽에서 생활하고 자신은 서울에 경제활동 기반을 두고 ‘글로벌한 삶의 반경’을 누리는 미란은 ‘여왕’으로 떠받들어진다. 드라마는 이른바 ‘고향을 지키는 친구들’의 인생 역정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고향을 지킨다는 건 단지 서울로의 이주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삶의 반경과 대비를 이룬다. 드라마에서 고향 지키기의 핵심은 은희로 상징되는 젠더화 된 돌봄 노동이다. 토착을 상징하는 젠더화 된 돌봄 노동은 또 다른 방식으로 토착을 상징하는 가부장성과 갈등하고 길항하면서 ‘토착 공동체성’의 표상을 구축한다.

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블루스〉의 텍스트 성격에 대한 간략한 탐구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두드러진 상품 간접 광고에서 잘 드러나듯이 텍스트의 정치성을 논하기에는 자본의 논리에 너무나

37) 〈우리들의 블루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가 있다. 장애 통합의 문제로 드라마를 해석한 김세령, 남세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재현된 장애인의 완전 통합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제46권 제1호, 한국문화와융합학회, 2024, 289-305쪽. 영상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드라마에서 제주가 어떻게 관광 이미지로 환원되는 지를 분석한 김필남, 「느슨한 지평, 지속의 원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영상을 초과하는 촬영지와 이미지」, 『문학이후』, 선문대학교 문학이후 연구소, 2023, 183-199쪽. 정착민 식민주의 감성구조와 관련해서 해녀의 크래프트를 비교 분석한 권두현, 「감성주의적 생명정치와 크래프트의 프락시오토포 - '해녀'와 '아마'의 정동 지리적 비교 연구」, 『상허학보』 제67호, 상허학회, 2023, 323-375쪽.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착민 식민주의 감성 구조와 관련해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다루고 있어 권두현의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으면서도 다른 해석을 제기하고자 한다.

투향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타협적인 서사임에 분명하다. 텍스트는 한편으로는 지방의 친밀성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지만, 지방을 인스타그램 스냅 샷의 소스로 재구성하는 모순과 협상에도 일말의 주저함이 없다. 친밀성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성이 벌어지는 장소는 간접 광고의 무대가 되어버리고, 모든 장면이 인스타그램의 스냅 샷의 소스로 제공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는 드라마나 영화가 지방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특정한 기술 광학적 시선에 맞추어 절단하고, 절취하며 약탈하면서 이를 새로운 장소 미학 혹은 미학적 장소로 재구성하는 방식의 극한을 보여준다. 오늘날 지방에 대한 약탈적 식민화와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착민 식민주의는 지속되는 중인데, 그 수행자의 자리를 인스타그램 스냅 샷의 대규모 생성과 확산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광학적 기술을 통한 장소의 재배치는 단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투항하는 측면에서만 문제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블루스>가 보여주는 신파적 화해와 인스타그램 스냅 샷을 기반으로 한 ‘도시 미학’은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생산 시스템에 가깝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타협과 화해의 한편에서 드라마는 친밀성과 대안 정동에 대한 어떤 잠재성과 집합적 응답 가능성의 영역을 남겨두고 있다.

케이틀린 프란스 브루스는 페미니즘 미학에서 타협적이거나 굴욕적인 감성으로 비판해온 ‘귀여운 것’을 대안적 도시 미학을 위해 활용하는 거리 예술가들을 분석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타진하기도 했다. 특히 케이틀린 프란스 브루스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상품화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예술 도시 모델”로 기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생산의 에토스”나 “집합적 응답가능성을 촉발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그 미학적 가능성을 놓치지 말고 해석해내야 한다”고 논한다.³⁸⁾ 인스타그램의 스냅 샷과 그 원재료가 되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 텍스트는 그

런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 구축의 예술/기술이 되고 있다. 즉 드라마나 영화가 단지 도시 브랜딩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도시를 미학화 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 “예술 도시 모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예술 도시 프로젝트는 신자유주의적 예술 도시 모델로 기능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응답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우리들의 블루스> 또한 신자유주의적 예술 도시 모델로서의 기능에 더 치우쳐 있다고 판단되지만 다른 응답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젠더화 된 돌봄 노동과 가부장성은 토착의 역사를 반복하면서도 변화해 가는 중이다. 은희와 호식, 인권의 대비는 단지 세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의 ‘동생 세대’로 상징되는 동석의 어머니 옥동(김혜자)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이 전형적이다. 동석의 폭력으로 비어버린 돌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친구들로 설정되고, 드라마 상에서 이 친구들의 돌봄 노동이 제주 권당 문화의 긍정성을 계승한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토착 공동체는 가부장적 폭력, 여러 대에 걸쳐 반복해서 누적되어 일종의 이 공동체의 습속이 된 문화의 배타성(권당 문화의 배타성은 드라마에서 반복해서 강조된다.)으로 인해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 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토착 공동체를 겨우 지켜내는 건 은희의 헌신적인 돌봄 노동과 경제력 덕분이다. 가족,

38) “쿠르시 커먼즈와 공공 예술의 인스타그램용 스냅샷을 기반으로 한 예술도시 모델에 크게 의존하는 기타 행사들은, 더 큰 연대와 행동주의 네트워크 내에서 읽히지 않을 경우 그저 고정된 것, 항상 인용 및 탈맥락화가 가능한 것, 편안한 것 등으로 코드화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케이틀린 프란스 브루스는 신자유주의적 포섭과 상품화의 거대한 시스템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며, “신자유주의적 생산의 시공간을 다른 생산의 에토스, 즉 ‘다음 세대’든 불편한 ‘어둠’이든 집합적 응답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Caitlin Frances Bruce, “REHEARSING A CURSI COMMONS : Receptivity, Defense, and Wonder”, T. Reeser ed, *Routledge Comapinon to Gender and Affect*, New York: Routledge, 2023, pp.343-354.

친구들에게 이용당하고 약탈당하면서도 결국 묵묵히 토착 공동체를 지켜 내는 은희의 돌봄 노동은 옥동의 역사와도 겹쳐진다. 옥동이 고통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묵묵히 이를 감수했다면, 은희는 때로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터뜨린다.

드라마는 시리즈 중반까지도 육지에서 이주한 노동자 영육을 따돌리는 토착민들과 해녀 공동체의 갈등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영육을 통해 “제주도 사람들끼리 멍쳐서 외지인을 따돌리는 권당 문화”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토착과 이주의 갈등과 대립은 한편으로는 영육의 정체와 실상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불신에서 촉발된다. 영육은 속을 알 수 없고, 토착 공동체에 대해 항상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기적인 행태를 반복한다. 제주와 마을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공동체의 상호성에 적대적인 영육은 이주민 노동자와 MZ 세대 노동자에 대한 상투화된 부정적 감정을 자극한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권당 문화의 배타성, 토착의 배타성과 약탈적인 외부자(육지 깃) 이주민이라는 대립은 영육의 속내와 정체를 알게 되면서 파열된다. 영육의 언니 영희의 등장은 실제 발달장애 당사자를 캐스팅하면서 <우리들의 블루스> 최대의 화제가 되었다. 차별과 편견 속에서 시설에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영희에게 제주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간다.

드라마에서 토착 공동체의 가부장성과 젠더화 된 대안 공동체는 은희와 은희의 친구들을 통해 그려진다. 반면 살뜰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공동체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옥동의 존재는 현재에는 영육으로 이어진다. 드라마에서 옥동과 영육 모두 마을 공동체의 시선에서 속을 알 수 없고, 감정을 가늠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토착의 돌봄 공동체와 옥동, 영육 사이의 불화와 갈등은 드라마에서 가족의 회복을 통해 봉합된다. 드라마는 한편으로는 옥동과 영육에 대한 대를 이은 오해, 불신, 배제, 폭력

의 역사를 드라마적 갈등과 긴장의 주요 요소로 삼아 진행되고, 결국 가족의 회복(결혼과 화해)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결혼을 통해 제주의 토착 공동체에 포함되었으나 애초부터 공동체에 포함된 배제 상태였던 옥동의 자리는 사별과 ‘첩살이’로 더욱 배제 쪽으로 기운다. ‘첩살이’를 해서라도 토착 공동체의 한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옥동의 한평생을 동석은 이해할 수 없다. 무정한 어머니를 탓하며 옥동을 원망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는 동석은 자신의 상실을 근거로 가부장적 폭력을 재생산한다. 결혼 계약을 통해서만 반쯤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부장 공동체에서 옥동은 가족 공동체에서 아들의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끝내 그 폭력을 감수한다. 이렇게 폭력을 감수하는 태도는 아들 동석에게는 무심하고 무정한 어머니로만 감각되었다.

드라마 내내 옥동은 무표정하고, 속내를 알 수 없고, 절친 춘희(고두심) 말고는 누구에게도 감정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춘희에게 밝힌 감정과 속내조차도 춘희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어머니에게는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만, “알고 보면 착한” 인물로 그려지는 동석은 어머니를 향해 “냉정한 인간”이라고 욕을 퍼붓는다. 동석은 어머니에게 폭력을 수행해온 이유를 “자신에게 평생 한 번도 웃는 모습, 다정한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존재”라고 정당화한다. 권두현은 〈우리들의 블루스〉와 일본 드라마 〈아마짱〉 분석을 통해서 해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을 정동정치적 맥락에서 흥미롭게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옥동을 “무감정한 존재”로 그리는 감상주의적 생명정치를 탁월하게 분석하고, 옥동과 동석의 화해를 “신과”를 반복하는 문제로 날카롭게 비판했다.³⁹⁾ 공감과 무감정에 대한 권두현의 분석을 이어받으면서 이 연구에서

39) “〈우리들의 블루스〉 마지막 회차에서 동석은 어머니 옥동을 몰아붙이며 자신에게 미안한 줄은 아느냐고 따져 묻는다. 여기에 옥동은 동석에게 자신이 ‘미친년’이라 미안함

는 옥동의 삶의 궤적과 영육의 연결, 무엇보다 정착민 식민주의, 가부장성, 여성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옥동의 죽음을 앞두고 이뤄지는 동석과의 화해는 드라마의 감동 포인트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옥동의 속내와 히로애락을 시청자들은 끝내 알 수 없다. 옥동은 동석을 내내 사랑했다는 것, 그럼에도 다음 생에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가 정보로 전달된다. 드라마에서 이뤄지는 반전은 드라마 내내 제주의 토착성의 중심, 특히 젠더화 된 공동체성의 원천으로 설정된 옥동이 실은 제주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옥동은 목포의 작은 마을이 고향이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고향 제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결혼 후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한 채 원 가족과도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죽음 직전 방문한 고향은 저수지 아래 수몰되었고, 고향과 원 가족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지 못한다. 제주의 토착 공동체성과 모든 것을 품는 원주민 공동체의 젠더화 된 돌봄 노동의 상징처럼 떠받들어진 해녀 공동체의 중심은 실은 고향을 잃고 이주와 매매혼으로 제주에서의 삶을

을 모른다고 답한다. 옥동의 비정함은 무감정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틴 신 야오는 감정(feeling)이 생명정치적 지배의 근본적 테크놀로지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무감정(unfeeling)을 생존과 저항을 향한 불만과 이의의 정동적 지표로서 역사화하고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신 야오의 주장에 따라, 옥동의 무감정은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크래프트의 박탈에 대한 자구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옥동의 무감정한 상태를 강조하는 존재는 아들 동석이다. 동석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과잉으로서의 정동적 신체성을 가진 존재다. 남성의 감성주의는 정동적 보편성에 대한 가정을 위협하는 대안적인 감정의 구조의 창발을 억압하고, 끝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탈정동은 정동의 단순한 대립항이 아니라, 정동을 앞세운 권력과 권위의 체제에 대한 불충실함이다. 옥동은 죽음권력의 폭력적인 포섭에 기초한 보편적 주체의 감정 구조에 포함되지 않고 정동 이방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함으로써 동정심이 없는 무감정한 존재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감정을 잃어낼 수 없는 옥동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 동석은 인간의 정동적 보편성을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탈정동된 주체가 동정과 공감의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판단은 곧 자신의 공감 능력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권두현, 앞의 글, 364-365쪽.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고향 상실자인 여성 이주민이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를 여성들의 돌봄 공동체로 그려내면서 지역, 젠더, 계급의 문제를 흥미롭게 탐구한다. 노희경의 전작 〈디어 마이 프렌즈〉가 이른바 ‘노년 여성들의 돌봄 공동체’를 인상적으로 그려내었다면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돌봄 공동체의 중심에는 비혼의 ‘중년 여성’인 은희가 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춘희를 중심으로 한 해녀 공동체와 여기서 비껴나가 있는 옥동을 또 다른 축에 두고 은희, 영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돌봄 주체들의 돌봄 노동을 변화와 반복의 역사성 속에 배치하고 있다. 여성이 주요 행위자가 되는 젠더화된 돌봄 노동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남성 가부장들의 토착 공동체의 역사와 갈등하며 길항 관계를 맺는다. 옥동, 은희, 영옥이 이른바 지역의 토착 공동체와 맺는 관계성과 갈등의 양태도 역사적이다. 옥동은 남편이 일찍 죽자 첩의 신분이 되어 제주에서의 삶을 이어간다. 가부장적 질서에 편입된 옥동에게 돌아갈 ‘고향’은 없었고, 첩의 신분으로 제주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다. 반면 은희는 이른바 자본의 전지구화에 따른 토착 공동체의 격변을 온 몸으로 보여준다. 영옥은 불안정 노동 시장이 전부인 세대로서 지역 이동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옥동, 은희, 영옥은 재생산 질서와 권력의 역사적 변화와 이행을 보여주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해녀 공동체가 젠더화된 돌봄과 토착성의 연결을 보여준다면 고교 동창생 공동체는 남성 가부장이 중심이 된 토착 공동체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혼한 두 친구 호식과 인권의 관계가 보여주듯이 가부장적인 토착 공동체는 재생산 위기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 재생산 위기는 언제나 마을 언저리를 맴도는 동석의 존재와 공동체/어머니를 향한 적대가 암시하듯 적자 중심의 가부장 토착 공동체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려진다. 해녀

공동체 역시 영욕을 향한 적대와 배제가 보여주듯이 외부인을 향한 적대로 인해 내부로부터 재생산 위기에 처한다. 물론 토착 공동체의 재생산 위기는 일찍이 서울로 떠난 한수와 미란이 성공한 존재로 그려지듯이 서울로의 인구 유출과 미국과 유럽으로의 '진출'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한편으로는 지역의 토착 공동체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역 토착 공동체의 붕괴 요인은 지역 내적인, 오래 축적된 '문화'나 '관습'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 서울로 떠나거나 가족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고 초국가적 영토 속에서 삶을 추구하는 한수와 미란의 선택은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로 그려진다. 반면 옥동과 동석의 평생을 지배한 차별과 영욕을 차별하는 '권당 문화'는 집단적이고 지역적이며 문화적이고 관습적이다. 물론 이런 시선은 지역의 공동체성을 낭만화하지 않으면서 돌봄과 공동체의 의미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구조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토착 공동체의 가부장제나 배타성은 제주 특유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의 산물로 할당되고 그런 의미로만 사회적이다. 반면 이와 대비되어 지역을 붕괴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서울로의 이주나 초국가적 이동은 글로벌 자본주의에서의 개인의 욕망의 문제로 환원된다. 얼핏 보기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지역 토착 공동체의 억압적 가부장제, 배타적 공동체 문화와 관습을 비판하는 방식은 이런 배타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사회적, 관습적 문제라는 걸 환기시킨다. 반면 글로벌 자본주의나 서울 중심의 성장주의는 그러한 토착 공동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욕망의 문제로 환원된다. 또한 가부장적이고 배제적인 제주의 토착 공동체라는 (권당 문화에 대한 반복적 인용처럼) 설정 자체가 제주의 토착성을 둘러싼 역사를 기이한 방식으로 변용한다.

홍기돈은 제주의 공동체성은 여러 마을이 연합한 정치 공동체의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마을 연합 정치 공동체는 반도의 국가(왕조 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권력적 억압에 대항하는 정치적 결사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연합체로서 제주 공동체를 초토화시킨 것이 4·3 학살이었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4·3 이후에도 1950~60년대 반도 작가들의 작품에서 제주를 ‘원시적인 혈족 공동체’로 재현하는 것은 반도의 국가들이 제주를 식민지로 취급하면서 열등하고 원시적인 집단으로 위계화한 논리를 반복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즉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른바 ‘제주 권당 문화’라고 규정된 제주의 오래된 관습 혹은 문화는 실은 조선 왕조에서 근대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 걸쳐 진행된 반도의 국가 권력에 의한 제주에 대한 식민화된 시선을 반복한다.⁴⁰ 제주에서 “육지 것”이란 그런 의미에서 반도의 국가에 의한 지배, 침략, 약탈과 학살의 역사의 산물이며 이를 수행한 정착민 식민자로서 반도 출신자에 대한 역사적이고 집단적인 인식과 정동 구조의 산물이다. 특히 제주가 한 달 살기에서 지역 이주 열풍의 중심지가 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제주에서 토착과 이주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 담론이 지배적이 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외부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청년 세대를 “밀어내는” 지방의 고질적 문제로 전도되어버린다.

옥동과 영옥으로 이어지는 이주자 여성의 역사는 토착과 육지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을 대안적 친밀성의 관계함에 기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강조되는 이주 여성과 가부장적인 토착 공동체의 대립과 갈등은 지방에 대한 식민화된 시선을 반복하거나 새롭게 구성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들의

40) 홍기돈, 「근대적 민족국가와 타자(他者)의 시선으로 재현된 제주 공동체의 면모」, 『우리문학연구』 제59호, 우리문학회, 2018, 421-453쪽.

블루스)에서 제주의 토착 공동체는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혈족 공동체와 그 연장에 있는 특정 습속을 공유하는 종족 공동체로 그려진다. 옥동이 결혼을 통해 토착 공동체의 일부로 포함되었다면, 영옥 역시 결혼을 통해 공동체의 일족이 될 예정이다. 학교 동창인 인정은 명보와 이혼하면서 작품 결말의 공동체 화합의 행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즉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의 토착 공동체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결사체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혈족 공동체, 관습과 습속을 공유한 특유의 종족 공동체로 그려내는 식민화된 방식을 반복하고 강화한다.

이런 점에서 줄곧 동석의 폭력을 감수하고 말기 암의 고통조차 무표정하게 감내하는 고통에 무감각하고 죽음을 감수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옥동의 표상은 이른바 ‘양민’의 표상에 담긴 식민화와 학살의 흔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방 이래 근현대사를 걸쳐 반복된 정착민 식민 국가에 의한 지역 주민에 대한 학살은 정착민 식민 국가의 폭력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살을 자행한 ‘국가’는 학살 희생자를 폭도로 분류했다. 이 폭도와 대비되는 규정은 선량한 시민, 곧 양민이었다. 정착민 식민 국가에 의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은 폭도에서 양민으로 재규정됨으로써만 복권될 수 있었다. 아들에게조차 부당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 고통을 감수하는 선량한 피해자, 옥동은 오래 반복된 그 양민의 표상과 겹쳐진다.

양민이 폭도라는 대비항을 통해서만 규정된다고 할 때 오늘날의 토착민들은 환대하고 포용적인 토착민과 외부인을 따돌리고, 젊은이들을 서울로 밀어내는 배타적인 토착민이라는 ‘새로운’ 대립 항으로 분류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젊은 세대를 중앙으로 밀어내는 배타적인 지방이라는 표상은 일본에서 지방소멸 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지방에 대한 식민화의 새로운 방식이 한국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우리들의 블루스>의 토착민들의 선택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오늘날의 토

착민들은 더 이상 선량하거나 순박하지도 않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오래된 배타적인 습속을 버리지 못한 종족으로 그려진다. 이 종족의 미래는 어떤 폭력도 감수하고(옥동), 배신도 약탈도 감수하는(은희) 환대와 화해의 주체들에게 있다.

은희의 돌봄 노동이 잘 보여주듯이, 그녀의 돌봄 노동은 철저하게 경제적이지만 동시에 가족의 부양을 위한 떨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딸이 미국에서 성공하여 정착하도록 부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수를 위해 결국 돈을 빌려주는 에피소드가 잘 보여주듯이 은희에게 친밀성은 약탈과 분리되지 않으며, 가족, 친구와 마을 공동체와 같은 친밀성과 돌봄 관계 역시 거래와 약탈적 관계와 구별되지 않는다. 절친 미란과의 갈등적 관계가 보여주듯이 친구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삶의 반경을 확대하고, 그 확장된 삶의 반경에서 실패할 때마다 위안과 도움을 청하는 곳이 바로 은희로 상징되는 토착/지방/고향이다. 즉 은희는 옥동처럼 폭력을 감수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경제적 주체로 능동성을 획득한 존재로 그려지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약탈당하는 폭력을 감수하는 존재로 설정된다. 은희의 젠더화 된 돌봄 노동은 ‘친구들’이 미국과 유럽이라는 더 넓은 권역으로 귀속 관계를 확장하는 것과 대비되어 그러한 권역적 확장을 지탱하는 떨감, 안식처, 휴양지가 된다. ‘쉬러 오는’ 친구들에 진절머리를 내는 은희의 현실성은 ‘우정의 회복’이라는 전형적인 힐링의 시대정신으로 타협된다.

〈우리들의 블루스〉가 제주와 토착민에 대한 오래된 식민주의와 새로운 식민주의를 반복하면서도 일말의 대안적 공동체성과 대안적 친밀성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분열적인 텍스트라면 〈웰컴투 삼달리〉는 지방, 제주, 토착, 고향이 더 이상 힐링과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도 감각되지 않는 시대정신의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드라마에서 제주 삼달리에 돌아

오는 이들은 “모두 실패한 이들 뿐”이다. 어려서부터 개천용이 되겠다던 삼달이와 개천을 지키겠다던 용필이의 반평생에 걸친 사랑 쟁취기라는 점에서 친밀성과 지방 서사가 밀착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러 면에서 〈우리들의 블루스〉 효과와 차별화를 염두에 둔 작품이다. 주요 인물의 친밀성의 위기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서사의 중심이고, 알 수 없는 속내와 무감정한 주체로 용필의 아버지 조상태가 설정된다. 〈웰컴투 삼달리〉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패배를 뜻한다. 거기에 유일한 예외는 용필이다. 뛰어난 기상관측자인 용필은 스위스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안 받았지만 가기를 거부한다. 마을 사람들 모두 “왜 상필이는 스위스에 가지 않는가, 혹은 서울에 가지 않나” 궁금해 한다. 드라마는 상필이 스위스에 가지 않는 이유와 삼달이과 헤어진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상필이 스위스에 가지 않은 이유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다. 상필은 삼달이, 삼달이 엄마, 해녀 공동체, 삼달리와 제주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이러한 지키는 일은 그 자체가 타협이거나 알 수 없는 이유의 산물로 그려진다. 스위스나 서울로 가는 게 성공이고 마땅한 일이 된 시대 고향을 지키는 일은 이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려진다. 결국 드라마는 용필과 삼달이의 일과 사랑에서 방해물이 되었던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구세대 가부장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친밀성과 일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들은 유럽으로 나아가고 고향에 남은 이들은 이들을 응원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되돌아간다.

용필이 ‘지키는 남성성’으로 등장한 것은 흥미롭다. 한국의 남성성 서사는 지키는 남성의 서사가 아니다. 가부장 남성은 사랑도 일도 성공을 통해 쟁취한다. 〈청춘의 덫〉이 대표하듯이 한국의 남성 가부장은 쟁취하기 위해 파괴도 정당화하며, 가족과 친구, 마을과 고향 공동체는 남성 가부장의 성공을 위해 약탈을 감수하고 그를 지킨다. 입신출세와 “개천용(“개천에서

용 난다”는) 서사”의 전형이다. <웰컴투 삼달리>는 개천용 서사를 인용하지만, 역설적으로 개천용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서사로 보인다. 지키는 남성의 역할을 자임하는 용필은 당연한 일(서울행과 스위스 행)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포기한 자로 그려진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과 스위스는 용필의 삶의 권역이 된다. 지키는 일은 실패나 타협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의미의 지키는 가부장 남성성은 존재한 적이 없다. 즉 존재한 적이 없는 주체성(지키는 남성 가부장성)을 가상적으로 내세우고 그 실패를 문제로 설정하면서 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웰컴투 삼달리>의 차별성이다.

예를 들어 지키는 남성성은 친밀성, 지역, 마을, 국가로 확장되는 일본의 가부장 남성성의 전형적 주체성이기도 하다. <하야부사 소방단>의 미타타로는 전형적이다. 일본의 서사에서 지키는 남성성의 균열은 그런 점에서 이러한 오래된 가부장 남성성과 국가주의, 정착민 식민주의의 변화, 반복, 이행을 보여준다. <하야부사 소방단>에는 그러한 균열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흥미롭게도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이쪽을 봐줘, 무카이 군>(2023)은 지키는 남성성의 균열을 보여주는 징후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너무나 사랑했던 연인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고받은 무카이군은 그 결별의 이유를 모른 채 십년 넘게 연애도 사랑도 못하고 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고백을 겸하여 “평생 너를 지켜주고 싶어.”라는 감동의 대사를 전달했지만, 연인은 “지킨다는 게 뭐야”라는 질문을 남긴 채 떠난다. 무카이 군은 10년 넘게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드라마는 사소한 연애담을 반복하지만, 친밀성의 관계에서 지키는 남성성에 대한 질문이 부상하는 시대적 변화를 볼 수 있다.

반면 <웰컴 투 삼달리>는 존재하지 않는 지키는 남성성을 제시하고, 그 실패를 통해 다시 지키는 남성성을 폐기한다. 드라마는 지역에 남는 청년

을 실패자로 규정하거나, 지역을 지키려는 용필의 노력과 희망적인 모습을 블랙 코미디처럼 그린다. 지방소멸 담론이 ‘청년 문제’와 청년을 중앙으로 내모는 희망 없는 지방이라는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드라마의 서사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명확해진다. 즉 용필은 상실에 사로잡혀 무모하고 끝이 없는 ‘폭력’을 수행하는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기이한 행복감을 표명한다. 용필의 행복감은 역설적으로 용필의 행복을 필사적으로 가로막는 아버지의 존재를 환기시킨다. 행복할 수 없기에 ‘대신’ 소중한 사람과 장소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용필의 모습은 지방소멸 담론이 그려내는 전형적인 지방 청년의 모습이다. 지방(대) 청년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결혼, 취업, 이주와 같은 진로를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그 타협을 합리화 한다는 ‘진단’은 지방소멸 담론을 선정적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⁴¹⁾ 게다가 이런 식의 지방 청년 논의는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지방소멸 담론과 결부되어 제기된 “활력을 잃은 청년 문제”나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과 같은 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본에서 지방소멸 담론은 인구 문제로서 특정 인구 집단을 문제적인 집단으로 설정하는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 특히 청년은 활력을 상실한 존재로 문제 집단으로 설정된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에서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행복을 지탱해주는 생활 기반이 서서히 썩어들기 시작한 ‘뒤틀린’ 사회 구조 속에서 젊은이들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기묘한’ 안정감”을 진단하기도 했다. 활력을 상실한 청년은 지역이나 가족 공동체 등 어디도 소속되지 못하는 ‘소속 없는 사람’으로 진단되기도 했다.⁴²⁾ <웰컴 투 삼달리>는 지방이 더 이상 힐링의 장소로도, 인스타그램의 스냅샷을 위한 미학

41) 대표적으로 최종렬, 『복학왕의 사회학-지방청년들의 우짚는 소리』, 오월의 봄, 2018.

42) 박승현, 앞의 글, 161쪽에서 재인용.

화 된 장소의 매력도 상실한 채, 오로지 떠나는 일만이 마땅한 일이 된 시대의 정동 구조를 별다른 이질감 없이 전달한다. 그렇게 지방은 떠나는 게 사랑이고, 떠나야 정상인 장소가 되었다.

6. 대안적인 지방 이념의 이론화와 정착민 식민주의 연구

〈하야부사 소방단〉의 미마 타로는 고갈된 창작 역량을 쇄신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다. 창조적 역량을 증가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미마 타로는 사랑도 얻고, 마을도 구하고, 창작 역량도 활성화 하게 된다. 여기서 사랑과 지방 창생, 창조적 역량이 모두 미마 타로라는 남성 영웅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여기서 남성 영웅은 위태로운 지방을 구하고, 그 창생의 효과는 소설을 통해서 도쿄라는 중심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정동으로 의미화 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서 지방은 세계의 중심인 도쿄와 대비를 이루지만, 동시에 지방의 부흥은 도쿄에서의 성공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본의 지방소멸과 일본 창생론의 서사 구조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지방의 위치가 도쿄로 상징되는 강력한 국가성과 세계성과 대비되어 구축되며, 일본 국가 외부의 영향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에서 역사를 거듭하며 반복되는 제국, 즉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일본 국가라는 국가 표상이 지방소멸 담론에서 재생산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주된 적대 집단 역시 기존의 일본의 식민주의, 특히 정착민 식민주의가 구축해온 인종화 되고 젠더화 된 적대와 배제의 구조를 반복한다.

반면 〈차금〉에서 국가로서 타이완의 실체는 흐릿하고 모호하다. 지방의

위치성은 국가나 국가의 중심과의 대비보다는 국제적인 권력 관계의 이행과 이와 연계된 정착민 식민자 지배 집단의 변화 속에서 구축된다. 이와는 다소 다르지만 〈미국 소녀〉에서 타이완은 국가로서의 신체성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유동하고 파열되는 병리적 신체(어머니의 신체)로 표상된다. 즉 두 드라마에서 타이완이라는 국가성은 부재하면서 정착민 식민자 집단으로 표상되거나 병리적 신체성으로 현상한다.

학살의 긴 역사와 국가주도의 개발, 약탈적인 관광 산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새로운 이주자 그룹과 기존 토착 거주자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제주를 다룬 두 편의 드라마는 타이완의 지방의 위치성을 다룬 드라마와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인다. 〈우리들의 블루스〉와 〈웰컴투 삼달리〉에서 제주는 청년과 여성 청년을 “밀어내는” 지방의 전형이다. 동시에 지방의 인구는 중앙인 서울로만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북미, 유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소멸되는 지방의 경제와 공동체에 개입하는 국가의 존재성 역시 모호하다.

일본의 지방소멸 담론이 궁극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개입과 일본의 세계 중심성을 회복하려는 기획이라면, 한국에서 지방소멸 담론은 국가가 부재한 채, 지방의 소멸을 소모적으로 부추길 뿐이다. 지방소멸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극소수이며, 지방 개념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역시 아직은 미진하다. 지방 개념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만 현재와 같은 약탈적인 지방소멸 담론의 소비를 멈출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지방소멸 담론은 인종화 되고 젠더화 된 적(공동체를 파괴하는 집단)에 대한 학살의 역사적 산물임에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인종화 되고 젠더화 된 적을 생산해서 절멸하고 학살하고 추방해온 정착민 식민주의 역사의 끝자리에 지방소멸 담론이 놓여있다. 이 역사는 또한 무감정한 토착민에 대한 서사를 통해서 ‘힐링’ 서사로 소비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권명아, <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는?>, 『프레시안』, 2021.05.31.
- 권명아, <'인국공 사태'의 교훈이 반페미니즘?>, 『프레시안』, 2021.06.03.
- 권혜주(극본), 차영훈(연출), <웰컴 투 삼달리>, 16부작, 2023.
- 노희경, 강정미 외(극본), 이동규(제작), 장정도(책임프로듀서), 김성민, 김누리(프로듀서), 김규태, 김양희 외(연출), <우리들의 블루스>, 20부작, 2022.
- 린권양(林君陽), <차금(茶金 Gold leaf)>, 2021.
- 모리 준이치, <리틀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2014.
- 모리 준이치, <리틀포레스트: 겨울과 봄>, 2015.
- 이노우에 츠요시, <아마짱>, 2013.
- 이케이도 준, 『하야부사 소방단』, 천선필 역, 소미미디어, 2023.
- 츠네히로 죠타, 야마모토 다이스케, <하야부사 소방단(ハヤブサ消防団)> 9부작, 일본 TV 아사히 2023.07.13. ~ 2023.09.14.
- 최철호 기자, <<청년지역정착 (下) 지방소멸위기 광역시까지 '확산'...청년마을 산업 '눈길'>, 『청년일보』, 2023.06.25.
-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 국가통계포털, 2023
- 후지이 미치히토 (각본·제작), <빌리지>, 2023.
- <이케이도 준의 <하야부사 소방단> 드라마의 관광 시설이 오픈(池井戸潤さん「ハヤブサ消防団」ドラマの観光施設がオープンへ)>, NHK 뉴스, 2023. 12.17.
- <爲何大家想移民去美國? 台灣人去大有可爲? 綠卡的3大好處>, 『遠見雜誌』, 2023. 12. 22.
- 邱翊哲·錢家萱·李政銳·姿伶·林佩姿, 『人生2.0, 換一種活法: 美國移民全攻略, 從簽證, 綠卡到投資移民必備指南(인생2.0, 사는 법을 바꾸다: 미국 이민자에 관한 모든 공략법, 비자, 영주권부터 투자이민 필수 가이드까지)』, 時報文化出版企業股份有限公司, 2023, 12.

2. 논문과 단행본

-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지방지차-지방문화-지방언론의 정치학』, 개마고원, 2008.
-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책세상, 2009.
- 권명아, 「연대(solidarity)와 전유(appropriation)의 갈등적 역학-포스트콜로니얼리즘, 탈민족주의, 젠더 이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9호, 상허학회, 2007, 167-203쪽.
- 권명아, 「기념의 정치와 지역의 문화 정체성: 저항과 글로벌 마케팅의 사이」, 『인문연구』 제53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38쪽.
- 권두현, 「감성주의적 생명정치와 크래프트의 프락시오그래피 -‘해녀’와 ‘아마’의 정동 지리적 비교 연구」, 『상허학보』 제67호, 상허학회, 2023, 323-375쪽.
- 김세령·남세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재현된 장애인의 완전 통합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제46권 1호, 한국문화와융합학회, 2024, 289-305쪽.
- 김필남, 「느슨한 지탱, 지속의 원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영상을 초과하는 촬영지와 이미지」, 『문학이후』, 신문대학교 문학이후 연구소, 2023, 183-199쪽.
- 박대권·장정진, 「조기유학 현상 변화(2000-2016)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미래교육학연구』 제33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47-71쪽.
-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제16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158-183쪽.
- 심정명, 「편재(遍在)하는 도쿄 혹은 비(非)도쿄 ‘지방’을 상상하는 어떤 방법」, 『일본비평』 제16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136-157쪽.
- 원광희·채성주·설영훈, 「지방소멸위험지수의 기준은 과연 적합한가?」, 『충북 FOCUS』, 충북연구원, 2020, 1-26쪽.
- 우치다 준, 『제국의 브로커들: 일제 강점기의 일본 정착민 식민주의 1876~1945』, 한승동 역, 길, 2020.
- 정성호,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0권 3호, 지역사회학회, 2019, 5-27쪽.
- 홍기돈, 「근대적 민족국가와 타자(他者)의 시선으로 재현된 제주 공동체의 면모」, 『우리문학연구』 제59호, 우리문화회, 2018, 421-453쪽.
- 오옥환, 『조기유학, 유토피아를 향한 출국』, 교육과학사, 2008.

- 조앤 W. 스콧, 『젠더와 역사의 정치』, 정지영·마정윤·박차민정·정지수·최금영 역, 후마니타스, 2023.
- 조앤 W.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이화진·최영석 역, 앨피, 2017.
- Caitlin Frances Bruce, “REHEARSING A CURSI COMMONS : Receptivity, Defense, and Wonder”, T. Reeser ed, *Routledge Companion to Gender and Affect*, New York: Routledge, 2023, pp.343-354.
- Laura A. Bray, “Settler Colonialism and Rural Environmental Injustice: Water Inequality on the Navajo Nation”, *Rural Sociology*, Vol. 86, Issue 3, 2021, pp.586-610.
- Lisa Lowe, *The Intimacies of Four continent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5.
- Pauline Wakeham, “The Slow Violence of Settler Colonialism: Genocide, Attrition, and the Long Emergency of Invasion”,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Vol.24, 2021, pp.337-356.
- Tomonori Sugimoto, “Urban Settler Colonialism: Policing and Displacing Indigeneity in Taipei, Taiwan”, *City & Society*, Vol. 32, Issue 2, 2019, pp.227-250.
- Xine Yao, *Disaffected : The Cultural Politics of Unfeel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1.

3. 기타자료

- 서나래, <혼란스럽고 복잡한 ‘진실의 세계’를 모르고 있었다 - 아줌마 연구자로 가까스로 살아남기③ ‘두 개의 한국’을 살아본다는 것>, 『교수신문』, 2024.04.03.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726> (검색일: 2024.05.15.)
- 정유경 기자, <‘가임기 여성지도’ 이렇게 탄생했다>, 『한겨레』, 2017.01.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266.html (검색일: 2024.05.15.)

- 〈이케이도 준의 〈하야부사 소방단〉 드라마의 관광 시설이 오픈(池井戸潤さん「ハヤブサ消防団」ドラマの観光施設がオープンへ)〉. NHK 뉴스, 2023.12.17. <https://www3.nhk.or.jp/lnews/gifu/20231227/3080012690.html> (검색일: 2024.05.15.)
- 〈응우옌핑이의 창작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좋은 가족 영화는 많은 사회 문제를 투사해 낼 것이다〉, 『500輯』, 〈文藝視角〉 인터뷰, 2024.01.09.

Abstract

Affects of Apocalypse and Settler Colonialism called Healing Journey

Kwon, Myoung A(Dong-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discourse and local extinction narratives by country while comparing and examining Japanese, Taiwanese, and Korean drama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national, and local relations in Japan, Taiwan, and Korea, and through this, the differences in local ideology and local extinction narratives by country are examined. In addition,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at the theory of local extinction repeats the gendered and racialized exclusion and extinction structure implied in settler colonialism as a product of the history of the settler colonial state. In this process, the specific emotional structure of settler colonialism is to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movement of homecoming and the affect of healing accompanying it.

(Keywords: Affect, Apocalypse, Settler Colonialism, Healing Journey)

논문투고일 : 2024년 5월 15일

논문심사일 : 2024년 6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18일